

시흥 아리랑

보라 동녘 하늘 떠오르는 저 태양 당산 양평은 북면,
서초 양재 신동면 드넓은 시흥 땅 눈부시게 비춘다 과
천 안양 살아도 예전엔 시흥 사람 저녁엔 함께 오라,
오이섬 월곶으로 서해 낙조에 우리 꿈 활활 불태워 보
자 강릉 부산 목포로 사동오달 이은 길 고속길 순환길
썩썩 달려 서울로 한강에서 서해바다, 터전도 하 넓구
나 군자바다 매운 자리 치솟은 저 굴뚝 고래실논 얼씨
구 긴배미논 절씨구 살미 앞들에 풍년가 드높아라 월
곶에 배 띄워라 참조기 몰려온다 모내기 김매기도 단
비에 때맞추면 집집마다 벧가리 수북한 나락뒤주 서
로서로 손잡고 걸음 맞춰 나가세 번영하라, 시흥고을
하늘이 점지한 땅 영원하라, 천세만세 시흥 시민이여

박영만 제 3 가사집



秋浦 박영만

한국문인협회 이사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한국문학비평가협회 감사
소설집 『장강 아리랑』
기행문집 『중국대륙 역사기행』
문학평론집 『우리의 일 지키기』
시집 『始興詩篇』 『소래산은 소리를 돌려보냈다』
『소나무로 서 있음』
기타 영문시집, 한문시집
한중대역시집, 한영대역시집 등

한국가곡작사가협회 이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가사집 『하우고개』(1996)
『그 이름 시흥이여』(2003)
『시흥 아리랑』(2008),
1993. 11. 26. 호암아트홀 『한국작곡가회 신작발표회』에서 『하우고개』 작사 발표 이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인천문예회관
기타 중앙과 지방에서 가곡가사 60회 177 작품을 발표하고, 음반
(C.D)에 33 작품을 수록 공동 출판.

<http://cafe.daum.net/choobopk/>
choobopk@hanmail.net
016-310-5786 031-503-4451

시흥 아리랑



▲ 고잔하마터



▲ 관곡지(池)



▲ 구석골향나무



▲ 류희랑묘



▲ 계수저수지



▲ 물왕저수지



▲ 박석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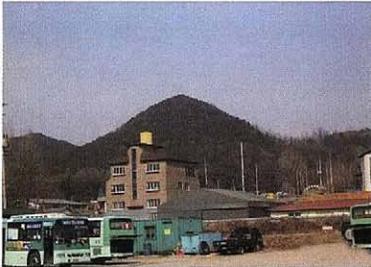
▲ 월곶-포구



▲ 뱀내



▲ 비석거리



▲ 사미마을과 옥녀봉



▲ 삼실다리-오수펌프묘



▲ 생금우물



▲ 소금창고



▲ 소래산내원사



▲ 신안주씨 적선비



▲ 학미산



▲ 오이봉화터



▲ 옥구정낙조대



▲ 장유선생 신도비



▲ 실미앞 호조별



▲ 조남동지석묘



▲ 피흘(리)고개



▲ 하우명효자정각



▲ 긴마루측백나무



▲ 길마재팽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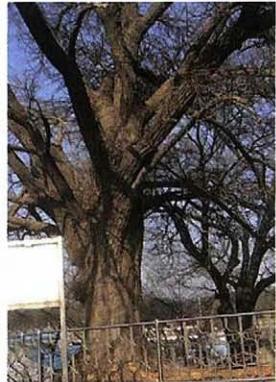
▲ 노루우물



▲ 논줄은행나무



▲ 무지동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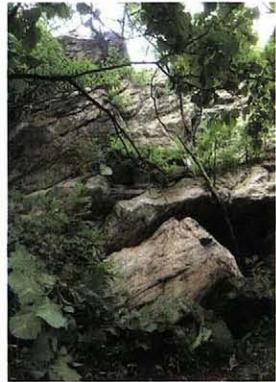
▲ 새우개은행나무



▲ 이숙번묘소



▲ 인선왕후 생가터



▲ 장군바위

시흥 아리랑

시흥 아리랑

박영만

제3 가사집

月刊文學 출판부

次 目 次

- 시흥 찬가 / 10
아리랑, 시흥 아리랑 / 11
서해 낙조 / 22
시흥 마당에 / 24
시흥 고을 / 26
시흥의 아침 해 / 27
손을 잡고 / 28
시흥 버스를 타고 가며 / 29
연아 날아라 / 30
하우고개 / 31
소래산 장군바위 / 32
소래산 약수터 / 33
하연 선생 화나무 / 34
하우명 효자정각 / 36
파란 악보 / 37
방아다리 느티나무 / 38
뱀내장터 물이꾼 / 40

뱀내(蛇川) / 41
꿈봉우리 / 42
마애보살입상·1 / 43
마애보살입상·2 / 44
여우고개 / 45
생매산아 생매산아 / 46
생매산 나무꾼 / 47
모래고개 / 48
은행정에 오르니 / 49
각시골 모내기 / 50
배터 / 51
길마재 팽나무 / 52
삼년고개 나무꾼 / 53
계수저수지 / 54
구석골 향나무 / 55
매화꽃 마을 / 56
밤섬 / 57

미산동 / 58
살미 앞들로 / 59
사리 주막거리 / 60
신안주씨 적선비 / 61
무지동 / 62
점말의 웅기는 / 63
무지동 은행나무 / 64
솔개고개 / 66
큰말고개 / 67
방산동에는 / 68
학미산에 오르니 / 69
학미산 나무꾼 / 70
소래염전에 서서 / 71
새우개 은행나무 느티나무 / 72
새우개 장승박이 소나무 / 74
안성부원군 묘소 앞에서 / 75
소금 창고 / 76
도리재 / 77

도리채 느티나무 / 78
단종이 넘은 박석고개 / 79
응봉산 매들은 / 80
매들은 높이높이 / 81
벼슬고지 연꽃 / 82
비석거리 / 83
베실구지 향나무 / 84
얼미에서 / 86
물왕저수지 / 87
남왕 마을 / 88
피흘(리)고개 / 89
누낭고개 / 90
논줄 / 91
삼실다리 / 92
논줄 은행나무 / 94
문봉(文峯) / 96
곤두레미 고개 / 97
조남동 지식묘 / 98

묘재 나무꾼 / 100
양단말 응단말 / 102
노루우물 / 103
서둘고개 나무꾼 / 104
긴마루 측백나무 앞에서 / 106
인선왕후 생가터 / 108
고잔 하마터 / 110
월곶에는 / 111
물새야 넌 알고 있지 / 112
농바위 자리에서 / 114
수군 만호 고을 / 115
돌주리 / 116
옥구섬 / 117
옥구섬 해넘이 / 118
옥구정(玉鉤亭) / 119
생금우물 / 120
오이도 봉화터 / 121
군자봉의 노래 / 122

환자산 / 123
사미 똥골 / 124
사미 길쌈노래 / 126
사미 굴렁바위 / 128
구준물 / 130
복고개 / 131
영웅대군 묘역에서 / 132
배우물 / 134
망고개 / 135
지계의 노래 / 136
시흥 산타령 / 140
한우물 / 145
시흥고등학교 교가 / 146
금양의 논밭둑을 걸으면(2인 이상 낭송용) / 148

부록

박영만 시 작곡 공연 일람 / 158
박영만 시 작곡 등재 서책 / 169
음악(C.D) 공동 출판 / 177

시흥 찬가

보라 동녘 하늘 떠오르는 저 태양
당산 양평은 북면, 서초 양재 신동면
드넓은 시흥 땅 눈부시게 비춘다
과천 안양 살아도 예전엔 시흥 사람
저녁엔 함께 오라, 오이섬 월곶으로
서해 낙조에 우리 꿈 활활 불태워 보자

강릉 부산 목포로 사통오달 이은 길
고속길 순환길 쌍쌍 달려 서울로
한강에서 서해바다, 터전도 하 넓구나
군자바다 메운 자리 치솟은 저 굴뚝
고래실논 얼씨구 긴배미논 절씨구
살미 앞들에 풍년가 드높아라

월곶에 배 띄워라 참조기 몰려온다
모내기 김매기도 단비에 때맞추면
집집마다 벧가리 수북한 나락뒤주
서로서로 손잡고 걸음 맞춰 나가세
번영하라, 시흥고을 하늘이 점지한 땅
영원하라, 천세만세 시흥 시민이여

아리랑, 시흥 아리랑

제1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시흥고개 넘어간다
내 고운 님 사는 곳 시흥이라 하여
시흥역에 내려서 동네방네 물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하우고개 넘어간다
화살택시 타고서 안양역을 지나오오
총알택시 타고서 부천역을 지나오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모래고개 넘어간다
매소홀 황등천 신현면 고을에
아파튼지 뒤파튼지 산 높이 솟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오이섬 넘어간다
잉벌로 안산 수암 군자땅에는
갯벌에서 공장 굴뚝 하늘로 솟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구지정 넘어간다
소래산 장군바위 북새풍 막고
군자봉 祭壇은 마파람 막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연꽃마을 넘어간다
文良公 농사 지혜 사람마다 잘 익혀
가을 소출 풍성하고 인정이 넘친다

제2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天宮門 넘어간다
하늘에선 하느님 세상 사람 돌보고
마을마다 사람들 서로서로 돌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누낭고개 넘어간다
다자귀야 더자귀야 우리아들 다자귀
왜군들 피흘리고개 피넷물 흐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나븐들 넘어간다

이 고장 원님네는 꿈에서 백성 근심
비석거리 비문에 스며 있는 애향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오이포구 넘어간다
넓은 들 외진 산골 신립 장군 지키고
월곶엔 水軍萬戶 서해바다 지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대부도 넘어간다
정왕산 봉수꾼 오질이 봉수꾼
눈빛을 번쩍번쩍 먼 바다 살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낙월천당 넘어간다
천만년 은행나무 목련화 향기에
자손들 편안히 단꿈 꾸며 산다

제3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열녀문 넘어간다
하늘이 점지한 땅 시흥 고을엔

저마다 家門·貞節 잘도 지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효자문 넘어간다
집에서 부모 공양 효자가 되고
밖에서 나라 걱정 충신이 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저승길로 넘어간다
아버이 사설 때 효경으로 섬기고
저승에 가실 때 슬픔으로 곡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보릿고개 넘어간다
삼년 흉년 뒤주에 보리 한 줌뿐인데
시부모 공양하고 냉수만 마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효자정각 넘어간다
河友明 효심에 놀라는 호랑이
제수 마련 시묘 3년 번성하는 자손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지옥문 넘어간다
孝經이 때문었나 명심보감 불렀나
춤추는 불효자가 왜 이리 많은까

제4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꽃동산 넘어간다
운흥산 붓꽃웃음 바닷가 갯매꽃
관곡지 연꽃웃음 길거리 목련웃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뱃머리 넘어간다
어기어차 월곶에 고깃배 띄우세
저기어차 물왕에 놀잇배 띄우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정왕산 넘어간다
높푸른 하늘 아래 저 넓은 호조벌
오이도 서해바다 섬들도 많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은행재로 넘어간다
동 트자 까치 소리 기쁜 소식 들리고
은행목 팔을 벌려 즐겁게 맞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여우고개 넘어간다
봄철을 열어 오는 소래산 진달래
웃음꽃 아름다운 길거리 개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구름산 넘어간다
흐르던 뭉게구름 시흥 땅 내려보니
눈부신 산자수명 정신을 잃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미산논둑 넘어간다
마파람 흥겨워 일렁이는 벼이삭
뱀내천 물왕방죽 너울너울 춤춘다

제5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닷줄 위로 넘어간다

水軍萬戶 龍神旗 높이 꽃고 배 뜨니
미친 풍랑 멈추고 하늬바람 춤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물새 엮고 넘어간다
일곱못날 떠난 님 길 잃어 못 오나
무섯날 오시려면 물새 따라오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닭장 위로 넘어간다
물에 빠진 낭군님 막사리에 오려나
여섯못날 꼬꼬닭 울기 전에 오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선창가로 넘어간다
대부물길 막히면 옥구섬 지나오오
송도물길 험하면 소래나루로 오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군웅시루 넘어간다
어허나 삼칠일 굶은 배서낭아
고창굿 돼지머리 통째로 먹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장보고旗 넘어간다
 물 아래 용신수비 물 위에 뜬수비
 날마다 큰배 지어 낭군恨 풀겠다

- * 水軍萬戶: 조선 초기 종4품의 수군 무관직으로, 시흥시 월곶에 수군만호의 鑰를 두었음.
- * 일곱못날(일곱무날): 어민이 쓰는 물때로, 음력1일과 16일.
- * 무셋날(무수날): 음력 9일과 24일의 물때. 썰물 다음의 날이므로 조수물이 조금 불기 시작함.
- * 막사리: 얼음이 얼기 전, 음력 10월 마지막 고기잡이 시기.
- * 여섯못날(여섯무날): 음력 보름과 그믐의 물때.
- * 배서낭: 해안 또는 섬에서 선박을 주관하는 신.
- * 군웅시루: 군웅은 옛날 이름 날렸던 장군신, 군웅시루는 군웅에게 바치는 떡시루.
- * 수비: 잡신을 일컫기도 하고, 신을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뿔마니 신.

제6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백년해로 넘어간다
 서릿발 시집살이 석달 열흘 찬바람
 잉꼬부부 금슬은 금가지 않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相思樹 넘어간다
 상사나무 가지는 임 향해 뺨고

원앙부부 우리는 애정 손길 키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사랑고개 넘어간다
의치증이 무언가 의부증이 무언가
서로 믿고 정 주면 잉꼬부부 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대부교로 넘어간다
오이도 사랑은 장미꽃 사랑
그믐날 배 떠나면 시들고 만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소래염전 넘어간다
은행나무 암수는 마주보고 웃고
창동 총각 섬말 아씨 마주보며 애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양우재로 넘어간다
장군바위 우뚝해 낭군을 삼으라
관곡지 움푹 패어 낭녀를 삼으라

제7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범고개로 넘어간다
오랑캐 늑새바람 이리저리 시달려
해가 떠도 내 팔자 달이 떠도 내 팔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흥안령 넘어간다
큰녀석 이역만리 몽고 땅에 끌려가
애지중지 고명딸은 궁녀로 업혀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창동 곳간 넘어간다
군자벌 호조벌은 왜놈에게 앓기고
집집마다 나락뒤주 쥐새끼에 앓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염병고개 넘어간다
한해 농사 도조 주고 공출로 다 주고
동네마다 하나 둘 간도로 떠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수령배미 넘어간다
비가 오면 모심은 진배미 논 근심
두 달 가뭄 다랑밭 열무배추 근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승례문 넘어간다
과거 공부 이십여 년 반거충이 내 신세
머슴살이 마당쇠는 회전의자 앉았다.

서해 낙조(西海 落照)

하늘에 열린 분홍꽃밭에서
꽃들이 우리를 부른다
손짓하며 부른다

온갖 世事の 榮辱마저
활활 불태우는
저 황홀한 祭壇
감히 다가설 수 없는 聖域

수평선 입술 끝에서는
태초의 고요 속
정갈히 목욕재계하신 어머니의
새 아침이 잉태하리란
예감의 언어 아련히 들린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고
돌주리 玉鉤亭으로
말문 막힌 소래 장군바위
넋 잃은 하늬바람도 오라

이 천지 온 꽃들이 모여
꽃물을 흠뿌리는

저 엄숙한 神들의 축제
法悅의 꽃잔치를 바라보자.

시흥 마당에

1.

이른 봄 하얀 목련
양지널에 꽃피우고
거리마다 은행나무
길손을 안내하네
소래산의 높은 기상
서해바다 넓은 마음
사랑 넘치네 넘치네 시흥 마당에

2.

사시사철 푸른 솔
군자봉에 우뚝하니
마을마다 사람마다
푸른 꿈 꽃피우네
큰물 길게 띠 두르고
큰산 높게 바람 막아
복을 모으네 모으네 시흥 마당에

3.

은행공원 흰비둘기
옥구공원 까치 소리
호조별엔 풍년노래

온누리로 퍼져 가네
큰물 길게 떠 두르고
큰산 높게 바람 막아
웃음 모으네 모으네 시흥 마당에.

시흥 고을

단비에 금월산 목 적시면
호조별 벼포기들
하늘 향해 아우성이네

군자봉 낭군 찾아 떠나는
성곡산 마님서낭은
생금물 황금닭 드릴런가

하우하우 고개 넘어서
배실구지 아가씨들
연꽃 향기 뿌리러 가려나

병풍바위 마애보살은
뱀내를 굶어보며
衿陽雜錄 뒤적이네.

시흥의 아침 해

하늘 높이 떠오르는
늪름한 시흥의 아침 해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셔라
친구야 누나야 우리 손잡고
오자봉 하늘을 우러르자
싱그러운 산과 들을 보자
해맑은 목련화 수줍은 웃음
드넓은 호조벌에 성큼 자란 모포기
푸른 산 너른 바다
우리 고을 시흥 아침
영원히 영원히 이어가세
소래산아 오이섬아
두 손 들어 아침 해 맞자
산새야 무지갯빛 희망을 내려주니
물새야 우리 다 모여
목청을 높여높여 노래를 부르자
한바탕 춤추자
서해바다 섬들의 환호성
풀잎마다 매단 영롱한 아침 이슬
푸른 산 너른 바다
우리 고을 시흥 아침
영원히 영원히 이어가세.

손을 잡고

뒷마당은 소래산이 앞마당은 군자봉이
찬바람을 막아 주는 시흥 터전 아늑하다
랄랄랄라, 랄랄랄라
손을 잡고 나아가세 흥 돋우어 노래하세

서해 물결 잔잔하니 철새들이 찾아온다
뱀내에서 조남으로 증림에서 오이도로
랄랄랄라, 랄랄랄라
손을 잡고 나아가세 흥 돋우어 노래하세

정왕에서 불빛 한번 서울에서 불빛 한번
큰 문 넷을 모두 열고 작은 문도 모두 열고
랄랄랄라, 랄랄랄라
손을 잡고 나아가세 흥 돋우어 노래하세.

시흥 버스를 타고 가며

산울림 닿는 곳
달려가고 싶어라
개나리 활짝 피고
종달새 춤추는 들녘
따스한 봄기운 번지는 곳

풀내음 꽃내음
가슴 바듯 젖어라
떠날 때 흔든 손
차창 열고 화답하니
닿는 곳마다 날 반기네

소래역을 지나니
갈림길도 나오네
꽃동산을 지나가면
큰 다리도 밀려나고
군자봉 눈빛 밝아오네.

연아 날아라

나비연아 날아라
봉황연아 더 멀리 날아라
시흥 雪花紙에 하얀 눈 펴펴
흩날려도 그저 마냥 좋아라
그대 정 맘대로 당기고 풀며
명주 細白絲에 사랑 감는
나의 육모얼래여
하늘 북줄 오래오래 쥐고 있어라

오색연아 날아라
제비연아 더 멀리 날아라
너를 줬 연줄에 마음 두지 말고
자유로이 한껏 돌아다녀라
저 아래 소래산을 내려다보며
겨울 바람에 시달리던
마른 나뭇가지들
파란 꿈 아름답히 꺾 주어라.

하우고개

하우고개 딛고 서니
오롯이 구불한 길 펼쳐지고
나그네 꽃신에 떨어진 땀방울은
한밤에 세어 보는 별과 같구나

등 위에 두둥실 몽실구름 내려와
앞새들의 잔잔한 노랫소리
귀 열고 듣고 있네 듣고 있네

하우고개 넘어서니
해맑은 목련화 환히 웃고
은행나무 가지엔 까치 한 쌍
기쁜 소식 갖고 훨훨 나네 훨훨.

소래산 장군바위

참 알 수 없으라
진달래 마과람 불러다
춤 추이니 조용히 웃네
죽은 꽃들도
봄바람에 다시 살아나네

벼락에도 환히 웃는
소래산의 장군바위
그 마음 알 수 없으라
내원사 위로
산까치 높이 날아가네

꽃향기에 취했나
아픔을 삭인 긴 세월
다문 입 언제 열려나
홀로 우뚝 선
그 풍채 의젓하여라.

소래산 약수터

산허리 한 발씩 기어오르는
한 마리 개미 되어 나는 이제
오솔길 돌아서 약수터 닿았네

한 모금 또 한 모금 맑아지는 내 마음
소래산 가슴에서 솟는 생수여

살아가는 온갖 무게를 모두
산자락에 풀어놓은 나는 이제
하늘을 날으는 산새가 되었네

조롱박에 담긴 생기 마시면
풀향기 듬뿍 안은 나는 이제
단숨에 비탈길 내릴 수 있겠네

한 모금 또 한 모금 맑아지는 내 마음
소래산 가슴에서 솟은 생수여.

하연 선생 왜나무

동틀녘 수원길 달구지에 실려 갔나
해질녘 인천길 목도곶에 옮겨 갔나

온 정성 다해 생전에 가꾼 왜나무
하연 선생 불현듯 눈 번쩍 떠 보니
꿈인가 생시인가 두 눈 씻고 봐도
밑동만 남아서 시름시름 앓았네
소래산 유유히 넘는 저 실구름아
너는 왜 살며시 귀땀 한번 안 했지

저 숲을 거닐며 시상 떠올렸는데
후손들 그 서정 허망하게 다 지워
이래저래 혈값에 목수에게 넘기고
땀내주막 주모와 권주가 불렀으니
인천부사 평소에 훈계하지 못했나
새 부사 올 때마다 궂은일 생겼네

다시 심은 왜나무 잘 자라는지
제삿날 찾아와 고루 살펴보시라.

* 하연(河演 1376~1453) :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 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주(晉州), 조선 전기 영의정(領議政) 벼슬에 올랐음. 전아(典雅)한 문장과 고학(古學)을 좋아했음. 나이 들어 시흥시 계란마을에서 시문을 즐기며 집 언저리에 왜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하여 소래산 서쪽 신천동 421번

지에 안장됨. 그의 묘 및 신도비는 시흥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되어 있음.(현지 안내판)

* 왜나무 : 하연 선생이 심은 느티나무. 회화나무라고도 하는데, 하연 선생과 왜나무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하우명 효자정각

사시사철 푸른 솔 계란마을 효자정각
홀로선 뜻 우뚝해 사람마다 기리네
이승 저승길이 떠나 먼 길이지만
손수 차린 찬으로 큰상 올려 드렸네
한겨울에 홀로 서 늙새바람 막아 내어
흰옷겨레 효도 향기 온누리 번져 가리

세조가 내린 벼슬 사양하기 두세 번
호랑이도 놀란 효성 오늘 더욱 빛나네
제수에 쓰일 거위 제 발로 돌아올 수야
낮에는 삼복더위 솔바람이 식혀 주고
밤이면 여막 지붕 별빛 비쳐 주었네
시묘 때 밤새 밝힌 석등의 불빛이여
흰옷겨레 효도 향기 영원히 이어 가리

파란 악보

복사골 먼동을 열어 가며
여우고개 꼬부랑길 넘고 넘어
참외랑 수박 실은 달구지는
시간의 수레바퀴 굴러갔네

올 봄엔 떼마른 자갈배미에
새 꿈이 파릇이 돋는다니
삼진날에 영수오빠 돌아오려나
제비따라 훨훨 날아오려나

호박만한 참다래 꿀복숭아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리는 날
하늘과 들판이 닿는 곳에
벼포기 파란 악보 그려 가자.

방아다리 느티나무

나 혼자 방아다리 파수꾼 되어
이렇듯 밤낮 한곳에서 있음은
꽃 피고지는 사계절 지켜보며
여름날 대야 마을 노인들 모셔
시원한 그늘 쉬어 가게 함이라
막걸리 한 잔씩 나누게 함이라

참새와 까치 날아와 놀아 주는
나는야 길손들의 참된 사랑방

산처럼 흰칠하다 말하지 마오
소래산과 대화 자주 나누려면
이만은 해야지 상대해 준다오
물동이 이고 방아다리 건너는
늘어진 땀기머리 쟁골 아가씨
누가 놀려대나 난 눈여겨보오

물방아의 저 힘찬 공이질 소리
나의 의지도 그만큼 굳세다오

* 방아다리 : 아래대얏골에 있는 자연부락으로 이 마을에는 예전에 물방앗간이 있었으며, 냇물을 건너는 다리도 있었음. 방아다리 느티나무는 가마길과 방아다리길이 만나는 길가에서 있음.

- * 아래대얏골 : 옷대얏골 아래 마을. 소래산에서 흐르는 시냇가 언저리에 자리함.
- * 재궁(齎宮) : 국왕이 제사를 준비하던 곳.

뱀내장터 몰이꾼

암소 고삐 잡은 뱀내장터 몰이꾼
장군바위 손짓에 발걸음 재촉해
풀 이슬 스쳐 가며 장터에 들어서니
새벽부터 거간꾼 기다리다 맞아주네
내가 먼저 맡았다 서로 끈 당기다
장 영감이 먼저 말뚝에 매어 두네

조끼 주머니에 넣어 준 돈뭉치
세어 보다 머리 저으며 돌려 쥐도
흥정꾼은 뿌리치며 저만치 달아나다
지폐 몇 장 받아 쥐고 환히 웃네
길 건너 순대집은 그들이 단골손님
막걸리 몇 대접에 흥을 돋우네.

뱀내(蛇川)

깊숙한 신선마을 전설을 안고
머언 여행을 떠나네
산자락 바위허리 굽이굽이 돌아
장터 인심도 두루두루 담으리

낮에는 들풀에게 웃음 던져 주고
밤에는 별들에게 마음 주는 뱀내

아늑한 웅달샘의 신비를 업고
머언 여행을 떠나네
지난 밤 장대비에 넘치는 힘으로
방산 들판에 풍년 가득 채우리

낮에는 들풀에게 웃음 던져 주고
밤에는 별들에게 마음 주는 뱀내

* 뱀내 : 한자 표기로는 신천(新川).

꿈봉우리

소래산 수렁 한 마리
생태산 까투리에 소리치네
어서 건너와 보라 하네

뱀내가 발 아래 보이네
집채마위 흔들 힘 솟고
나무들 날 오라 손짓하네

초롱꽃이 앞길을 밝혀 주니
산새는 장군바위 노래하고
소나무 언제나 푸르겠다네

후렴: 아침엔 동녘 해 희망 떠올리고
저녁엔 서녘 바다 꿈을 펼치리.

마애보살입상 · 1

개울물 줄—줄 뱀내로 흐르는데
밤낮 빈 하늘에 무엇을 채우시나

보아라 소래산 중턱의
병풍바위
마애보살을 보아라
진달래 향기에 배시시 웃는
티없는 얼굴 보아라

보아라 두 자나 늘어진
밝은 두 귀
마애보살을 보아라
먼 바다 새 소리에 귀기울이는
넓은 도량 보아라

보아라 머리에 쓴 보관(寶冠)
허리의 결대(結帶)
마애보살을 보아라
언제나 들풀과 맘 주고 받는
맑은 눈빛 보아라.

마애보살입상·2

소래산 중턱 소나무 숲
마애보살 마애보살
숨구름 떠가는 하늘을 보네

두 귀를 크게 열고 있는
마애보살 마애보살
산새들 지저귀에 환히 웃네

머리엔 寶冠이 눈부시고
허리엔 結帶를 두른 채
언제나 시흥 사람 마음 비추네

시냇물 얼어붙인 바람에
시달려 신음하는
들풀의 울음소리 귀담아 듣네.

여우고개

눈부신 해가 성주산을 넘어가
어슴푸레 깔리는 나무그림자
산기슭에서 여우 한 쌍 올라와
얼굴 비비며 사랑을 속삭이네
새들도 숨죽인 여우고개에서

운산을 살짝살짝 비쳐 주는
초승달도 어느 새 산마루에서
수줍어 얼굴을 숨기려 하는데
마음을 터놓고 요정들이 노네
전설이 얽혀 있는 고개에서

새벽이면 성주메 보금자리로
여우는 살며시 사라져 버리고
풀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에
지난 밤 비밀을 간직해 두는가
아침이 열려 오는 여우고개여.

생태산아 생태산아

생태산아 생태산아
소래산 앞에서 언제 떠났나
보리짖 포근포근 겨울바람 감싸 주고
이른 봄동안 진달래꽃 피워
은행정 품어 주며 환히 웃던 너

생태산아 생태산아
은행천(川) 곁에서 언제 떠났나
한여름 노루 토끼 놀이터 되어 주고
매에 쫓긴 까투리 다복술로 숨겨 주며
은행마을 정기 가득 내려 주던 너

생태산아 생태산아
소래산 앞으로 언제 돌아오나
바다에 빠졌거든 어서 솟아올라라
큰 길에 누웠거든 벌떡 일어나거라
뱀내(蛇川)가 목말라 너를 기다린다니.

생매산 나무꾼

포근한 날씨에 우리 맘 녹아 내려
노인네 아낙네도 나무하러 오르네
아담한 생매산은 새와 매 많다지
오늘은 나무 대신 새나 잡아 볼꺼나
웃터골 황서방 꿩 한 마리 잡아들고
반 짐 나무 지고 덜렁대며 내려가네

타동네 사람은 산주인이 막아주니
오늘 나무는 모두 동네사람 차지
생매산 양지널엔 나무가 하도 많아
짧은 다리 지게로 가시덤불 넘네
다복솔 뒤에는 토끼야 숨지 마라
나무꾼이 오르면 꿩도 달아난다

부넘기 넘어라 아궁이불 훨훨
검은 연기 올라라 모락모락 연들에.

모래고개

이젠 알 만하구나
피 속 아픔 삭이며
몇만 가닥 비단실로
외유내강 짜내는 이치를

고추같이 매달린
다홍빛 땀기 아가씨
사랑의 시전지 띄우니
바람등에 업혀 가네

봄소식 듬뿍 싣고
바다 넘어온 구름아
이 고개 넘고 넘어
내 안부도 전해다오
저 먼 산에도
꽃비 촉촉이 내려다오.

은행정에 오르니

생매산 어린 방울새
아침 빛 맞으려
하늘문 가웃가웃하나
돌피산 까치 한 쌍
은행나무에 내려와
열매 얘기 전하고
개자리별 향바람
낭모레이 우물맛에
걸음조차 멈칫거리네

은행정 올라앉아
시 한 수 읊조리니
끄덕이는 벼이삭들
은행잎도 부채춤
알곡내음 싱그러운
양지편 인심 풍겨오네
금바위처녀 찬우물총각
들빛 담으려 달려가나
꿈 낚으려 날아가나.

각시골 모내기

각시골 다랑논에 모를 심네
지난해 밭을 팔아 논을 샀더니
올해는 천수답에 물이 넘실하구나

한 줌에 세 포기 혹은 네 포기
가로 나란히 세로도 나란히
손끝으로 새질서를 꽃아 나가네

개구리 울음 맞춰 모를 심네
못줄엔 순희엄마 웃음꽃 피고
무논에 청록 비단 갈아 나가네

정다운 이웃들이 풍년을 심네
각시골 다랑논에 풍년을 심네

* 각시골 : 시흥시 은행동의 웃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은 아늑하여 여름철에 웃터골 아낙들이 은밀히 와서 목욕했다고 함.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각시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웃터골 박규열 70세)

배터

등근 달이 환한 보름날 밤엔
개펄에 밀려오는 바닷물 건너
은행정에서 시 읊던 낭군님 목소리
순희가 들을 수 없어 애태우던 배터
물새들도 함께 목메어 울었네

한밤엔 나룻배 하나 띄울 수 없으니
끼룩끼룩 끼끼룩
갈매기야 임 소식 알려다오

조금날 높새바람 따라 떠난 님
한사리에 참조기 가득 신고 지국총
콧노래 부르며 노 저어 온다더니
돌개바람 탓인지 님은 오지 않아
마중 나온 처자식 애태우던 배터

* 배터 : 시흥시 은행동의 자연부락임. 지금은 마을 앞 들녘에서 벼이삭이 황금물
결을 일렁이고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이곳에 머
물거나 드나들었다고 함.(은행동 권어택 70세)

길마재 팽나무

우람하게 서 있는 너 팽나무야
이건 정말 꿈 같은 옛일이지만
방죽논 오순도순 모내기하다
새참 들던 일꾼들을 보았다지
오구재는 김매다가 잠시 쉬던
시원한 그늘 정자목 되었다지

한사리 때 닳줄 묶어 둔 나무야
밤이면 달빛에 그 풍경 빛났지
팽열매 총알 쏘며 놀던 아이들
저승에서 종이총알 장난하던가
방게 잡다 손 물린 장난꾸러기
다들 어디 가고 혼자만 섰는가

- * 길마재: 안현동의 자연부락으로, 수인산업도로 남서쪽에 자리한 마을.
- * 팽나무: 시흥시 안현동 366-7 길마재 서쪽 끄트머리 앞방죽들 바로 위에서 있음. 이 우람한 나무는 수령 350년쯤 되어 보이며, 조선시대 간척사업으로 물길이 끊어지면서 그 앞이 모두 들녘이 되었는데, 그 전 고깃배들이 드나들 때는 뱃사공의 등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배의 닳줄을 이 나무에 묶어 두기도 했다 함. 또한 길마재 주민들이 이 나무에 줄을 매어 그네를 타기도 했고, 여름철 마을의 정자나무로 활용하였다고함.(안현동 90-1 리기동, 76세)
- * 앞방죽들: 팽나무 바로 앞에서 남쪽으로 펼쳐진 들녘.
- * 오구재는: 팽나무 서쪽 도로 뚝 건너편 들녘의 논.

삼년고개 나무꾼

양지산 아카시아 어서 오라 부르니
삼년고개 넘어지며 나무하러 가세
복덕고개 지나면 복 받아 좋겠지만
삼년 더 살려면 이 고개 넘어야 해
어젯밤 용꿈 꾸어 흥겨운 걸음걸이
떨감 한 짐 지고 집으로 돌아가세

돌고개 자귀나무 어서 오라 부르니
삼년고개 넘어지며 나무하러 가세
곧게 난 발독길이 편하긴 하다만
오래오래 살려면 이 고개 넘어야해
산주인 오늘은 나타나지 않으니
서둘러 나무하고 돌아가야지

세 번 넘어져 삼년 더 산다면
몇 번 넘어져야 천년을 사나
말 좀 해다오 삼년고개 나무꾼아

- * 삼년고개 : 매체기와 장낙골 사이에 작은 고개 세 개가 있어 세 번 넘어지면 삼년을 더 산다는 말이 내려오고 있음.(안현동 90-1 리기동, 76세)
- * 양지산 : 안현동 양지편과 파림동, 무지동에 걸쳐 있는 산.
- * 복덕고개 : 매체기와 수인산업도로 사이에 있는 작은 고개.
- * 돌고개 : 매화동 이선이와 무지동 신흥마을 사이의 고개.

계수저수지

저수지엔 물만 담지 않았어요
옛날 구미로 바닷물 밀려올 때
갈매기 따라다니며 뛰놀던
동네 아이들의 천진스러움
가득 담겨 일렁거리고 있어요

저수지엔 담긴 것이 또 있어요
옛날 장수마을 수노골 아낙네가
쌀물 뒤를 조심조심 밟으며
소라 잡던 아름다운 추억
아침 햇볕에 조금씩 내비쳐요

가일 사람들 훈훈한 인심은
뱀내장터 길 저수지 오며가며
마음 속에 수채화 그렸음시오
웃터풀 아이도 송아지 몰고 와
아름다운 꿈을 키워 갔어요.

구석골 향나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
드높은 이상 태양에 불태우며
푸른 마음으로 이곳에서 산다
왜란을 겪으며 동기마저 잃어
이렇게 홀로 서기 익숙해졌다

난초꽃 웃음 나비를 유혹해도
영원한 향기로 혼자 남으려다
이 몸 불태워 향을 피우기까지
하늘눈빛 환히 비춰 주길 빌며
구석골 산자락 외로이 지키려
외진 곳에서 소박하게 살려다.

* 이 나무는 시흥시 계수동 산 22-5, 안골 끄트머리 구석골 초입 류병선 묘소 옆에
있음. 높이 5m 가량, 들레는 눈높이에서 2.7m로 늘어진 동쪽 긴 가지는 지주로
받혀 있음. 원래 두 그루였는데, 임진왜란 때 한 그루가 포탄에 맞아 죽었고, 현
재 있는 나무는 일제 말기에 한 젊은이가 윗부분을 잘라 팔았다가 아내와 소(牛)
까지 죽는 액운을 당했다고 함. 그 후로는 이 나무를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고
함.(현지안내판)

매화꽃 마을

매화꽃 흩날리는 꽃자리에 다가서
매체기마을 햇살에 스미려네
호조벌에 아지랭이 하늘거릴 제
포근한 봄기운 섬말을 감싸리니
그래 꽃이 저도 서운치 앓음이라

뇌머리벌 건너면 살미마을 쌀곳간
이 동네 어귀에도 방앗간 섰으니
큰 벌의 곡식은 여기서 쪼아야지
탈탈탈, 경운기에 실려 온 가마쌀
뒤주에 채우면 인심도 넘치리라

돌고개 올라서면 동녘엔 무지동
너른 들판이 서녘에 펼쳐 있고
좌청룡 용당뿌리 머리를 쳐드네
약수터 샘물엔 이선이골 새아씨
그 고운 마음 지금도 아른거리네.

밤섬

섬인 듯 동산인 듯 나직이 엮드린 채
매화꽃 한잎 두잎 하얀 꿈 지우는데
파릇한 논둑에선 송아지들 음~매
검은 염소와 어우르며 철없이 뛰노네

밤송인 듯 자라인 듯 들판에 엮드린 섬
벼포기 단비 맞아 파란 눈 반짝반짝
온종일 개구리와 가가거겨고교
까치도 나무 위에서 새들 지혜 익혀 가네.

미산동

예전에 바닷물 넘실대던 개펄에
들녘의 젓줄 은행천이 흐르고
등잔방죽 구레논에 심은 찰벼는
동지팔죽 새알심으로 그만이야
신랑신부 사랑에도 역시 최고야

살미 살미 살미는 쌀동네
창동 큰 곳간에 곡식이 넘치네

소를 기르려면 양우재로 가세
송아지 잘 자라 소 부자가 된다네
동쪽으로 양지말 서쪽으로 음지말
호조벌 넓은 들 싱그러운 바람
엠티골 사람들 훈훈한 인심 바람.

살미 앞들로

꽃샘바람 타고서 봄기운 오누나
얼-렐-러 상-사-뒤-야
살미 앞들로 논갈이하러 가세
마귀논 수렁배미 빨배미 깊은배미
웅덩이 손아귀에 고틀레 잡히려나
조심조심 나아가세 얼렐러 상사뒤야

지지배배 종달새 허공을 누비나
얼-렐-러 상-사-뒤-야
살미 앞들로 못자리하러 가세
예수논 매밀배미 두릅논 마루배미
어린 모 하나하나 푸른 꿈 가꾸고
노적가리 높여야 해 얼렐러 상사뒤야

어젯밤에 내린 비 풍년을 담았나
얼-렐-러 상-사-뒤-야
살미 앞들로 물꼬 보러 가세
구레논 등잔방죽 긴배미 고래실논
벼잎새 하늘하늘, 은물결 넘실넘실
학미산이 방긋 웃네 얼렐러 상사뒤야
얼렐러 상사뒤야.

사리 주막거리

여기는 옛날 인천부 전반면
사리 주막은 간데없고
추억 물결 방죽에 넘실거리네

그믐달 머리에 이고 온 삼십 리
뱀내장에 닿으려면 아직도 십리길
몰고 온 소들은
버드나무를 매암들지만
봉긋방 물이꾼은 제 고장 자랑
막걸리 대접 비우고 비우며
애기꽃 피우던 사리 주막거리

동창은 새벽을 조금만 열었는데
길에선 벌써부터 소들의 발굽 소리
해장국 한 그릇에
축지법으로 어서 닿아야지
나그넨 주모 인정 안고 떠나고
셋별만 외로이 하늘에 남아
영세들 떠이삭과 속삭여 주었지.

신인주씨 적선비(新安朱氏 積善碑)

병이 든 이에게 희망을
고달픈 이에게 위로를

중림동 길 옆 목직한 비각 하나
그 안의 돌비석 글씨들
우리에게 어둔길 밝혀 주던
신안주씨 따스한 정
과림방죽 맑은 물로 넘실대니
만수산도 말없이 고개 숙였어라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혈벗은 이에게 의복을

봄이면 가물가물 보릿고개
텅 빈 선달그믐 쌀뒤주
이집저집 다니며 채워주던
신안주씨 따스한 정
계수마을에도 잔잔히 번져 가니
한겨울 북새바람 포근하였어라.

* 현지에는 비와 비각, 정자가 있음.

무지동

지초 들판에

슬며시 꽃봉 연 무지내 마을
십자가 세운 지 어언 백 년
방죽물향 안개로 퍼져 오면
봉재산 눈짓하며 길을 터 쫓네
금오도로 자동차 물결 일렁이고
하늬바람 서울로 이어지는 꿈길

오랜 회오리

인고의 나날 지켜 온 은행목
오늘은 훈훈한 봄바람에
팔을 벌려 흥을 돋우나
태봉도 마주보며 어깨춤 추나
은행동 능내동 마을길 칠리에
논둑길 밭둑길 이어지는 인정.

점말의 용기는

점말의 용기는 김치독으로 일품일세
겨우내 포근한 흙품에 안겨
배추김치 깎두기의 곰삭은 맛
맛깔스레 빗어 내어
아침 저녁 밥상에 올려 놓겠다네

점말의 용기는 장독으로 일품일세
고추와 숯덩이 동등실 띄워
송조 엄마 정성스런 손끝의 맛
하늘빛도 가득 담아
조선장맛 남몰래 이어 가겠다네

점말의 용기는 물동이로 일품일세
마알간 샘물을 가득 채워
아침저녁 먼 우물 다니던
경수 누님 맑은 눈빛
오래오래 그 안에 간직하겠다네.

* 점말: 도창동 큰길가 부근, 예전에 용기 굽던 곳.

무지동 은행나무

길 건너 푸른 들 무지내 흐르고
들려오는 성가 외로움 달래 주네

서넛하늘 노을빛 황홀히 물든
은행나무 이름 따온 은행마을
마지막 장작불 꺼지며 빛나듯
별빛 모아두는 구멍난 몸 속에
젊은이들 옷가지 넣었다 입어
그 몸매 모두들 부러워한다지

세월이 흐를수록 알려지는 고목
날아오는 까치들 반갑게 대하네

뒷동산 참새들 웅기종기 앉아
허수아비 같다 수다를 떨어도
저녁나절 그림자 두렵지 않아
세상살이 여행길 힘겹지 않아
누군가 가시풀에 눕히려 해도
태봉의 환한 눈빛 지켜 준다네.

* 이 은행나무는 시흥시 무지동 352번지 은행마을 동쪽 끝자락 문현모씨 텃밭에 있음. 이 나무 한 길쭉 높이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에 젊은이들이 옷을 넣었다가 갈아입곤 했다고 함. 이 나무는 기둥과 가지가 쇠약해지고, 부패가 심해 동공이 생겨 봄에 새눈이 나오지 않는 가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뿌리까지 쇠약해

진 것으로 보임. 은행동이란 마을 이름은 이 나무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문현모의 형 문현수(1932년생))

* 태봉 : 무지동 농안밭 토란이 앞 나지막한 산으로, 옛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왕자의 태를 이곳에 묻었다 함.

솔개고개

방죽말 길가 이씨네 병아리
재 너머 쑥고개 토끼야
재룡을 피우며 놀아라
솔개고개가 밤낮으로
멀리서 노리는 소리개를
막아 주며 저렇게 서 있으니

쥐 위에 고양이
그 위엔 소리개
그러나 솔개고개 앞에선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네

사람이 만든 고개 서낭신
몸에 지닌 뽀족한 가시로
들쥐를 못 막는 무능아
겨울 바람에도 부들부들
아낙네 절이라도 받으면
동그라미 그리며 웃고 있네.

큰말고개

큰말고개 저 아래선
옛날 선창가 만선의 흥겨움
땃사람들 노랫소리 들렸노라
갈매기 하늬바람에 훨~훨
물 위의 아름다운 선율들
그 너른 개펄이 이제는 호조벌
알곡 향내 가슴을 적시네
저수지 맑은 물에 언뜻언뜻
마음 비추는 고개여

큰말고개 저 위에선
몽게구름도 지그시 눈 감고
하늘길 조심조심 지났노라
불어오는 소금바람 솔~솔
소나무들 눈 열고 온종일
조용히 넘는지 서서 지켰네
입영통지 들고 달려온
건너말 경수 큰절하면서
무운 빌던 고개여.

방산동에는

방산동에는 바우박이 터주가리에서
마루미 단이 주민들 손을 잡고
시월 당제 지내며 오순도순 산다네

방곡리 사람과 산곡리 사람이
서로 어우러진 방산마을이어

방산동에는 산우물 물맛이 으뜸이라
해거름에 고잔 다시골 아낙네들
동네 소식 물동이에 가득 채워 가네

방산동에는 우뚝 선 송신탑이
풍년 소식 바다 멀리 띄우고서
봉우재와 밤낮으로 눈짓한다네.

학미산에 오르니

학미산에 오르니 마음문 넓게 열려
새매보다 더 높이 허공으로 날아
바다 너머 저 멀리 비단길 보이니
어서 돛을 달아라 하늬바람 인다
머리를 조아리는 나무 위 두루미야
나래 펴 너른 바다 훨~훨 날아 보자

통통배 드나들던 신촌포구 자리엔
사나이꿈 하얗게 서리던 소금밭
시원한 바닷바람 새우개로 오르니
천인사초 갈대잎 하늘하늘 춤추네
머리를 조아리는 나무 위 두루미야
호조별 벼이삭 노란 꿈에 젖는가.

학미산 나무꾼

학미산 나무꾼은 신선이 되었나
어느 새 그 마음 하얀 학이 되어, 흐~응
살미 앞들 날아 소래염전도 날아
구성진 노랫가락 절로 나온다네, 흐~응
살미·양오재·곶쪽 사람들아
어서 다 올라와 이 재미 누리세, 흐~응

학미산 나무꾼은 풍류객 되었나
어느 새 그 마음 흥겨움 넘쳐, 흐~응
염전 물길에 배 타고 두등실
부자꿈 싯고서 소래로 떠간다네, 흐~응
이제 정신 차려 나무해야지
아궁이 불 지피고 아내가 기다리니, 흐~응

학미산 나무꾼은 통이 크다네
어느 새 그 마음 푸른 바다 담아, 흐~응
멀리 월곶바다 호조별 내려보며
큰소리로 야~호 더 멀리 야~호, 흐~응
나무 한 동 했으니 쉬어 가야지
노을자락 펼치며 돌아가는 길, 흐~응 흐~응 좋을씨구

소래염전에 서서

드넓은 갯벌에는 함초만 푸르르니
물새야 넌 아느냐 흰 보석 영글던 곳
무자위 바퀴 위에 떨어진 땀방울
하얀 꿈 넘실대며 꽃망을 피워 냈네
쓴맛이 짠맛 되어 단맛웃음 피우던
아아, 그 추억들 어디 가면 건지랴

굽이굽이 달려온 갯골·포리 물길에
망둥어 농게 방게 거슬러 올라오고
갈대들 은밀한 말 소근거려 주던
땡볕 산들바람은 고마운 내 친구
쓴맛이 짠맛 되어 단맛웃음 피우던
그 하얀 꿈자리 어디 가면 만나랴.

새우개 은행나무 느티나무

포구 나지막한 언덕 당집 마당
은행나무 느티나무 둘이 서서
뱃길을 알려 주는 등대였어라
어야디야 만선꿈 떠나간 배들
밤낮으로 무사 귀환 빌어 왔네

의젓하다 번창하는 포구 앞에
오롯이 펼쳐간 푸른 외길이어

왼편엔 동편마을 높새를 막고
오른편 서편마을 하늬를 막아
온갖 액운 막아 준 방패였어라
새하얀 보석꿈 반짝인 소금밭
짠맛단맛 내는지 지켜 보았네

이제 그 나무는 마을 허수아비
호걸스런 사공들 발길 끊기고
폐염전 서성이던 산들바람뿐
그래도 동제땀 조라상을 받는
저 땅녕된 허깨비 수호신인가

허망하다 무상한 세월 앞에서

무너져 내린 너희들 모습이어.

* 시흥시 포동 36 당집 옆 마당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포동 새우개마을 중앙에 나란히 서 있음. 이 나무는 서해에서 몰려오는 액운을 막으려 심은 것이라 하며, 음력 정월과 7월에 이 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출어민들의 무시귀가를 비는 동제를 지내왔음. 이 나무는 배가 드나들 때 등대 역할을 해 주었고, 이 마을 장승놀이 때는 서편마을과 동편마을의 기준이 되는 당산목이기도 했음. 은행나무는 도 나무, 느티나무는 시 나무로 1982년 10월에 각각 지정되어 보호 중임.(현지 안내판)

새우개 장승박이 소나무

논밭엔 매화마름꽃 다 지고
희끗희끗 눈이 덮여 있는데
남으로 떠가는 구름은 잠시
소나무 귀에 나직한 속삭임
구석진 곳 외로움 달래는가

옆에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서로 힐끗 힐끗 훑쳐보고 있네

궁금해하지 말게 동녘마을
그 당집 은행나무 느티나무
마을 중심에 제대로 섰으니
이 서북편 찬바람 물리치며
충신열사 절개로 살아 있게

보아라 솔향기 밤낮 풍겨 주는
대나무처럼 끈은 청신한 기상.

* 수령 200년쯤 되는 이 소나무는 '서편 장승박이 소나무'라고 부름. 시흥시 포동 71번지, 새우개 서편마을 북쪽 산기슭에 있는데, 그곳은 당집 서북쪽 10분, 방산동~하중동 고가 도로 남쪽 150미터쯤임. 마을에 들어오는 잡귀를 막으려고 예전 장승놀이(또는 당제)때 주민들이 이 나무 8m 동쪽에 '북방축귀대장군(北方逐鬼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장승을 세워 놓았음.

* 매화마름꽃 : 소나무 앞 논밭에 서식하는 미나리과에 딸린 다년생 물풀인데, 우리나라 희귀식물 중 하나임.

안성부원군 묘소 앞에서

호탕하고 올곧은 사내다운 기상
안성부원군 여기 편히 쉬시네
태종과 何如歌 함께 부르려고
丹心歌 강물에 띄우긴 했지만
눈 씻고 태종실록 살펴 보아도
백성들 괴롭힌 일 한 번 없으라

관모산은 그분의 화려했던 시절
권력의 무상함 물왕못에 띄우나
이 나라 튼실히 받쳐온 큰 기둥
권신들 모함으로 뽑으려 했지만
눈 씻고 왕조실록 뒤져 보아도
나라에 불충한 일 한 번 없으라

이숙번 안성부원군이시여,
『용비어천가』에 비춘 밝은 눈빛
붓을 든 선비들 화선지 비추시라.

* 안성부원군 이숙번(安城大院君 李叔蕃) : 1373(공민왕 22)~1440(세종 22). 본관은 안성(安城), 19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태조를 도와 고려 문신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음. 그는 태종 때에 승승장구하다가 올곧고 패기 넘치는 성품 탓으로 말년에 권신들의 모함을 받아 함양으로 유배하기에 이룸. 그는 『고려사(高麗史)』 개수에 참여하고, 세종대왕을 도와 『용비어천가』 저술에도 기여한 공이 크다. 그의 묘는 물왕저수지 서편 시흥시 산현동 글월 부근 관모산에 안장되어 있음.(현지 안내판)

소금 창고

— 패염전

너흰 정녕 무슨 증병 앓았더냐
시름시름 하나 둘 스러져만 가고
포리·진말마을 아파트 치솟으니
학미산 두루미 등에 업혀 떠났나
일손 놓고 한숨짓는 소래포구 고깃배
그래도 갈대숲은 빈 창고 지켜 주네

양상한 가슴패기 얼굴마저 흉하다만
너는 새벽 안개로 사라져야 했나
낮에도 애태우는 풀벌레 울음소리
너의 빈 가슴을 채우진 말아야지
학미산 남겨두고 홀연히 떠나는 날
개망초야 웃으며 찬양가나 불러다오.

* 무자위: 물을 위로 퍼올리는 농기구.

도리재

어서 올라와 보시라 어서
물왕방죽 물바람 타고 여기
금월산 산바람 타고 여기
도리도리 도리재에 오르면
신씨네 김씨네 밭에
흐드러지게 핀 오얏꽃 복숭아꽃
노적봉이 반하여 멍하니 섰네

어서 올라와 보시라 어서
오씨네가 터 잡은 마을 여기
인심이 훈훈한 마을 여기
양단말 응단말과 아랫말
언덕의 키 큰 느티나무
오백 년이나 긴 세월을 하루마냥
밤낮으로 의젓이 지키고 섰네.

도리재 느티나무

온갖 바람에 편할 날 없어도
우람한 도리재 느티나무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마다 푸른 자리 펴놓고
큰 새 작은 새 부엉이도 맞으니
새들아 부리를 모두 쳐들고
목청을 가다듬어 보아라

금이방죽에 물방개 노닐고
고래실는 풍년 빌며 빌며
아침을 열어 온 나무의 덕
하늘뭇에 그 정성 담고서
단비로 영새들 촉촉이 적시려니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단종이 넘은 박석고개

어머님, 당신의 품에 안기려고
반달음으로 고개를 넘어 갑니다
갈수록 더해 가는 숙부님의 잘못
가슴에 사무쳐 분노하시련만
저를 만나는 기쁨으로 잊으세요
눈물로 박석에 슬픔 그립니다

저 들녘 나무다리 지나온 길썩
풀벌레들 시름겨워 울었답니다
구불구불 오솔길 넘어 오는데
패랭이꽃 나직이 흐느꼈답니다
이 고개 나라 일 잘 알고 있으니
어머님 참으세요 밝은 빛 보시려니

양 같은 백성들 정성들인 박석을
사뿐사뿐 밟으며 지나오는데
한땀한 우리 사연 하늘이 아시고
한때는 마른천등 요란했답니다
일봉산아 지는 해 붙잡아다오
안산 昭陵의 어머님 기다리시니

어머님, 제가 박석고개 넘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 일봉산: 군자봉의 다른 이름. 봉우리가 하나뿐이므로 그렇게 불렀음.

응봉산 매들은

오솔길 구불구불 흰칠한 소나무
산마루 바위 옆엔 매들의 보금자리
하늘 높이 날아서 월곶바다 휘도는
응봉산 매들은 하늘의 왕자런가

왕성한 땅기운에 홀로 솟은 봉우리
서녘에 소래염전 동녘엔 호조별관
하늘 높이 날아서 가사미산 휘도는
응봉산 매들은 숲 속의 왕자런가

하직에서 샘말로 샘말에서 하직으로
물길을 이어 주고 인심도 전해 주려
하늘 높이 날아서 동네마다 휘도는
응봉산 매들은 사랑의 왕자런가.

매들은 높이높이

높이높이 하늘로 멀리멀리 바다로
매봉산의 황조롱이 송골매와 새매들
화살같이 오르다 바람 타고 내려와
꿈을 찾아 숲으로 갈대밭도 뒤지네

높이높이 하늘로 멀리멀리 바다로
매봉산의 황조롱이 송골매와 새매들
독수리가 없는 산 주인노릇 하려고
이산저산 날으며 죽정밭도 뒤지네

높이높이 하늘로 멀리멀리 바다로
매봉산의 황조롱이 송골매와 새매들
천지간을 누벼도 대적할 자 없다고
날갯죽지 으쓱이며 너른 들판 나네.

벼슬고지 연꽃

이 여름엔 가야지 연성(蓮城) 벼슬고지
진헌부사 강희맹 燕京 다녀올 적
품고 온 연당지 순박한 얼굴
티 없고 순결한 웃음꽃 해맑구나
연지기들 일하며 흘리던 땀방울
날마다 꽃봉에서 무지개꿈 부른다

연못은 좁아도 그 뜻 저리 넓어
진흙에서 지어낸 청순한 저 얼굴
목포로 부산으로 번져 간 향기
어른 아이 손잡고 정답게 몰려오니
연지기들 일하며 쏟아부은 그 정성
연잎 이슬방울로 환히 빛난다.

비석거리

마음 속 외로움 자라 이끼로 덮이고
비바람 생전의 공로 지우려 했어도
백성을 생각해 후손들 체면 위해서
언제나 물왕못 서편 길가에 서 있네

눈 뜨고 살폈지 굶주린 백성이 있나
귀 열고 다녔지 억울한 백성이 있나

은고을 순방 때 진언 상소를 받아도
하지골 순결한 연꽃 얼굴로 웃었지
물왕못 잔잔한 물결 선비풍 원님들
惡政은 한 일 없어 善政碑감이네

고관들 앞에선 고개 숙이고 절하던
생전에 찾아와 영화 꿈꾼 자 어디에
질경이 꽃들아 밤낮 속삭여 주어라
초승달 보름달 뒤엔 그믐달 뜬다지.

* 비석거리 또는 비전거리 : 시흥시 광석동 물왕저수지 서편 시청 가는 길가에 세워져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유실되고 지금은 버스정류장 뒤에 몇 점만 남아 있음.

베실구지 향나무

나는야 외로운 베실구지 파수꾼
내 곁에 와서 이 향기 짚어 보라

감나무 대추나무 어디로 사라져
문명의 물결에 나 홀로 떠 있네
사위에 치솟은 아파트와 상가들
벗히려 함이나 올리메려 함이나
헌거로이 서서 떼땀이 살아감은
보호수 간판 글씨들 지켜봄이라

관곡지 연꽃의 해맑은 눈빛들을
그들이 주고받던 그런 미소들을
치솟은 아파트가 가로 막아 왔네
삼색나물 차리고 돼지머리 올린
정월 길일에 제사상을 받았는데
보고파라 마을 사람 어디 시는지

내 어깨 걸터앉아 나무막대기로
아이들 몰아내 열병마저 몰아낸
권씨여 꿈에서 어서 깨어나시라
그때의 초가집 훈훈한 마을 인정
자치기 세간놀이 말타기 즐겼지

언제 그 모습 다시 보게 되려나.

- * 배실구지 : 벼슬고지가 변한 말.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 때 관곡지(官谷池)라고 했음.
- * 이 향나무는 시흥시 하중동 185-5 동아아파트 101동과 104동 옆에 있는데, 도(道) 나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음. 높이 약 12m, 가슴높이의 둘레 약 3m, 수령 1천 년쯤 추정됨. 맑은 가을을 연상케 하는 곡선미를 지닌 모습이며,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이 음력 정월 길일에 고사를 지내왔다고 함. 이 나무는 일제 중엽, 이 마을에 열병(장질부사)이 번져 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있을 때, 이 마을 권모씨의 꿈에 수많은 아이들이 마을로 몰려오자, 권씨가 이 나무에 걸터앉아 지팡이를 휘둘렀더니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그 뒤엔 열병까지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음.(현지 안내판)

얼미(上職)에서

높은 벼슬 산소까지 옮겨놓았나
인줄을 쳐놓고 얼미얼미 했다지
예전 벌논들판 물왕저수지 되어
인자한 가슴 이 마을 안아 주니
비석거리 옷말 아랫말 하나되어
우리 맘속 인줄 모두 풀어 보세

반달이 내려와서 뒷산에 앉은 듯
예전에 월미(月尾)라 이름 불렀지
비석거리 근엄한 쌍가마 사라지고
승용차 오토바이 썩썩 달리는구나
나쁜들 포도송이 호조벌 벼이삭들
넉넉한 마을이라 인심 훈훈하여라.

* 벌논들 : 저수지 수문쪽 논으로 수몰됨.

물왕저수지

잔잔한 수면과 속삭여 보려면
새 아침 동녘하늘 환히 열어 오니
인천 수원에선 논줄 지나 오시라
붕어야 잉어야, 단꿈에서 깨어나
강태공 몰려 오니 깊은 물로 나아가
지느러미 하늘대며 한껏 뛰놀아라

세상 티끌 무너미로 흘러 보내려면
군자의 넓은 마음 너를 맞아 주리니
안산 안양에선 사거리 지나 오시라
물새야 산새야, 가사미산 해 지면
물왕못 높이높이 밝은 달 떠오르니
스며오는 물향기 운흥산에 띄우자

남왕 마을

마음과 몸이 구슬보다 더 고운
옥녀봉 아가씨 이리 시집 오셔요
그래야 우리 마을 평안해지고
기름진 들녘에선 풍년가 드높아
새신랑 흐뭇하고 온마을엔 웃음꽃
김해 김씨댁은 가문의 큰 영광

하늘이 맺어 준 한 쌍의 원앙새
옥녀봉 아가씨 다소곳이 오셔요
을미 오솔길엔 산새들 노래하고
마을사람들 천생연분 축복해
물새들 하늘 나는 풍요한 남왕
덕수 장씨댁은 가문의 큰 영광

피흘(리)고개

황새들 평화로이 노니는 소나무숲
골짜기엔 왜군들 피강물 흘렸는데
'더자귀야' 까작까작 '모두 깨어 있다'
산마루 오르는 길 짓어대는 산까치
얼마나 많은 왜군 싸우다 숨졌나
이 고개 이름 피흘리고개더냐

삼천병마골 조선 군인의 아내는
왜군의 사정 거울 보듯이 알아내
'다자귀야' 소리쳐 '모두 자고 있다'
온 산에 울려 퍼진 한밤중 만세 소리
얼마나 많은 왜군 싸우다 숨졌나
이 고개 이름 피흘리고개더냐

한 여인의 두 아들 다자귀야 더자귀야
자고 있다 다자귀 깨어 있다 더자귀
영원히 빛나라 왜군 무찌른 그 지혜.

* 피흘리고개 또는 피울고개 : 시흥시 조남동 묘재마을에서 사티골(生谷)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임진왜란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음.(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누낭고개(淚囊峴)

어릴 적 놀림받아 울던 아이처럼
이 못난 울보 왜군의 장수야
부하 졸병 모두 저승길 보내 놓고
도망쳐 혼자 우는 꼴이 우습고나
추억이 아픔답지 않은 그런 눈물
향그러운 이 땅에 흘리지 말게나

어릴 적에 때맞고 울던 아이처럼
이 못난 울보 왜군의 장수야
부하 사랑 평소 되풀이 말하더니
도망쳐 혼자 가슴치니 우습고나
그리움 간절하지 않은 그런 눈물
향그러운 싸리꽃에 떨구지 말게나

어릴 적 땅뺨기 놀음 한번 졌다고
숨어 울었지 왜군의 장수야
언젠가 손아귀에 한번 쥐고봤던
구레논들이 물왕저수지가 되어
물고기 노닐고 물새들 날고 있다
이젠 은구슬 맑은 눈물 흘리자

* 누낭고개 : 시흥시 조남동 묘재마을에서 사티골(生谷)로 넘어가는 고개로, '누낭고개'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논줄

연안 이씨 대신집 대문 앞에는
아침부터 낮선 이 줄서 왔다네
수염 쓰다듬으며 헛기침도 하며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양반들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내리자고
또렷한 선을 그어 아뢰어야지

내 편이 대감 편 대감 편은 내 편
나라일 걱정하며 줄을 선 논줄마을

월곶 수군만호 자리 비었으니
이번엔 이 고장 인물 올려야지
문중은 다르지만 올곧은 사람
몇 해를 두고 뒹뒹이 살피왔네
종1품 외줄로 정1품에 줄서고
종2품 외줄로 정2품에 줄섰네

내 편이 대감 편 대감 편은 내 편
나라일 걱정하며 줄을 선 논줄마을.

삼실다리

초승달이 온누리 비추는 이 밤
나무다리 혼자 살며시 건너셔요
흐르는 물에 당신 모습 띄우며
흐뭇한 미소 짓고 있어요
콩밭길은 사람들 눈길 닿으니
수수밭 옆길로 돌고돌아 오셔요

당신을 생각하는 오직 한마음
풀섶에 넘어지고 도랑에 빠지며
이제야 이 다릴 건너와 보니
그리움 안고 홀로 있구료
풀벌레 우는 쓸쓸한 이 밤에
우리의 사랑 이어주는 다리여

낮에는 서두내 읍포 사람 만나
논줄 개울물 논물도 흘러와
농사일 집안일 동네 대감 얘기
밤엔 달맞이꽃 향기 젖었네
흐르는 물에 우리 사랑 띄우며
남 모른 사연 풀어 주는 다리여.

*삼실다리 : 논줄에서 수인산업도로 북쪽 약 200미터 지점 '논곡오수중계펌프장' 옆서두내길 초입 작은 개천 다리임. 본래 나무다리였는데, 1967년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음. 소실을 둔 어떤 논줄 사람이 이 다리에서 좀 떨어진 동쪽에 개와 집을 지어 주고, 마을 사람들 모르게 이 다리를 지나 소실집을 살며시 다녀가곤 했다 하여 '살며시 다리' 또는 '삼살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목감 15통 장 임종선)

논줄 은행나무

논줄 대신 집에 가는 양반들
내가 종일 말뚝만 서 있다고
얼간이처럼 대하지 말아 주오

나는 눈을 감고도 잘 알아요
나라 일로 큰어른 집에 가는
외지 양반 몇 분이나 되는지
발자국 소릴 세어 보면 알죠

나는 귀를 막고도 잘 알아요
큰어른 집 들어가는 그 분들
대신인지 부윤인지 군수인지
가마꾼 수를 세어 보면 알죠

큰어른 집에서 나오는 분들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미소짓고 지나가면 도지사요
눈빛 환히 빛나면 장관 자리

옆가게 정씨는 잘 알겠소만
요샌 큰 길 썩-썩 달리는 차
세어 보는 재미도 참 좋아요.

- * 논줄 : 논지곡(論知谷)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예전에 연안 이씨 문중에서 지체 높은 분이 이곳에 살았는데,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대신들이 이곳을 찾아와 줄을 썼다 하여 '논줄' 또는 한자로 '논지곡(論知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 * 이 은행나무는 시흥시 논곡동 282가게 앞 도로변 정자목이었는데, 1980년대 민가가 들어서면서 나무 언저리까지 길이 포장되고, 15미터 거리의 수인산업도로의 매연 등으로 나무가 쇠약해진 상태임. 논곡동 논줄마을 초입 수인산업 도로변에 있음.

문봉(文峯)

더핀물 서당에서 하늘천(天) 땅지(地)
학생이 많아서 읽는 소리 높아라
선생이 읽으면 학생이 따라 읽고
학생이 물으면 선생이 알려 주며
사제간 체취에 얼굴이 닳아 가는
글방 모습 보면서 미소짓는 문봉아

서당 앞에서 있는 저 봉우린
우주의 진리도 눈뜰 날 있으리

더핀물 서당에서 가가거겨고교
개구리 울음처럼 화음도 좋아라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한다더니
문봉은 따라 읽다 반은 생원 되어
날일(日) 달월(月) 찰영(晷) 기울축(昃)
읽는 소리 들으며 미소짓는 문봉아

서당 앞에서 있는 저 봉우린
우주의 진리도 눈뜰 날 있으리.

곤두레미고개

더푼물 지나 소래·안산 가려면
쉬고 가게나 곤두레미고개에서
선녀골 지나오다 안개에 감싸여
미녀와 등실 떠 산마다 떠돌았나
높은 어른 논줄에 아직 서 계시니
이제부터 맘 돌려 바른 길 걸어야 해

논지골엔 나라 일 논하고 있으니
쉬고 가게나 곤두레미고개에서
주막집 술기운 다 털어 내야지
고개에서 여직 코고는 자 누군가
새미·논줄에선 이런 사람 없으니
정령, 고개 너머 사는 사람이겠네

곤드레만드레 으하하하하, 온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곤드레만드레.

- * 곤두레미고개 : 안양 박달동 선녀골(仙女谷)과 시흥 목감동 더푼물(新촌)과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 목감 쪽에서 박달동 범고개로 올라가는 오른쪽 더푼물에서 남쪽 약 500미터 거리에 있음. 원래는 '곤드레되(산)고개' 였는데 '곤두레미고개' 로 부르기 쉽게 바뀐 것으로 여겨짐. (안양시지 참조)
- * 선녀골 : 곤두레미고개 너머 안양 박달동의 지역. 지금은 군부대에서 사용 중임.
- * 논지골 또는 논줄 : '논줄' 또는 한자로 '논지곡(論知谷)' 이라 부르는 목감동의 자연부락임.

조남동 지식묘

쉽없이 흐르는 새미 실개천
신작로 산자락 따라 찾아가니
그 긴 세월 비바람에 시달려
가슴에 금이 가 시름겨워하네
어느 고관대작 저승집이던가
새미 천석지기 저승집이던가

돌판덮개 들썩여 고고춤 출거나
받침기둥 흔들며 탕고춤 출거나

마산(麻山) 줄거리 숲을 헤치며
예전에 노루·평사냥 다녀와서
그대 이웃들과 잔치 벌였으리
저 구름 흘러가 새 구름 떠오면
산소 옆에 초막 살던 후손들
회전의자 앉아 꽃자리 꿈꾸리

다 털어놓게나, 지난 세월 이야기
다 보여 주게나, 깊이 감춘 보화를

벼이삭 속삭인 소능뢰(小陵山) 안골
뉘 먼저 알았나 먼동 뜬 소식을

저 높은 수암봉 눈짓해 주던가
산까치들 날며 아침 노래 부르네
다 어딜 갔나 제사 올린 제관들
도톨암 밤알로 끼니 때운 이도

침묵의 그늘에 밝은 빛 비추면
모두 알게 되리 그 옛날 전설을.

- * 새미 : 원조남을 말함.
- * 마산 : 산현동 조남동 일대에 걸쳐 있는 산.
- * 소능피 : 마산의 줄기.

묘재 나무꾼

1.

산이 많고 고개도 많아 묘재라
어느 산에 가든지 나무 좋더라, 얼씨구

주인과 나무꾼 몫은 5대 3이니
여기 남은 세 동은 나의 몫이네, 절씨구

처마 밑에 한 달 내내 쌓은 나무로
우리 집 한겨울 추위 걱정 없으리, 얼씨구

여긴 마른 쏘시개 저긴 솔가지
누런 솔잎 관솔은 향기도 좋더라, 절씨구

흥으 응으 흥겨운 묘재 나무꾼

2.

산이 많고 인심도 좋은 묘재라
어느 산에 가든지 밤도 많더라, 얼씨구

한두 시간 주우니 자루 가득해
골월 남왕 나무꾼 모두 모이네, 절씨구

나무 하루 한두 동 밤도 한 자루
나쁜들 천석꾼 부럽지 않네, 얼씨구

뱀내 장터 쇠도끼 달나라 은도끼
장작 패어 말리니 화기 좋더라, 절씨구

흥으 응으 흥겨운 묘재 나무꾼.

양단말 응단말

장승박이 동녘 남향반이 양지말
집집마다 밝은 빛 고루고루 비추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다지만
양지에서 피운 꽃 향기 더 좋아라
시월 초 동네 사람 당제때 모이면
장승박이 응단말 모두 한 마음

장승박이 천하대장군 앞에 서면
응단말이 양단말 양단말이 응단말

장승박이 동남 북향반이 응단말
산마루 향하여 밝은 빛 기다리네
남들은 산그늘 음산하다 하지만
응달에서 피운 꽃 송이송이 곱더라
장유 선생 글빛이 온 마을 비추니
걸보기엔 응단말 안으론 양단말.

노루우물

가인봉 노루가 내려오는 골짜기
예전에 욕심 많은 부자 살았다네
인색한 그 부자 덕을 쌓지 않아
스님이 시킨 대로 큰 바위 부수니
바위목 붉은 선혈 연달아 솟구쳐
그 피 흘러흘러 패가망신했다지

이젠 밤낮으로 자비의 물 흘러
눈보라에 얼은 손 녹여 준다네
허기져 찾아온 동냥아치에겐
가진 것 조금은 베풀어 준다네
너, 어서 망하라 솟구친 피가
너, 어서 흥하라 샘물로 솟네

빨래하는 아낙에게 깨우쳐 주는
인색함과 베품의 가르침이여.

* 노루우물 : 매골 가인봉(佳入峯) 깊은 골짜기의 우물로, 숲속아파트 224동과 조
남 월곶간 도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

서둘고개 나무꾼

1.

가을걷이 끝내고 땀감 마련해야지
날마다 한 짐씩 한 달 남짓 서른 짐
(어릴럴 나무야)

새벽녘에 가든지 한낮에 가든지
나무 한 짐 지고서 돌아와야지
(어릴럴 나무야)

서둘러라 서둘러 이 고개 넘으면
장유 선생 신도비 우릴 지켜 준다네
(어릴럴 나무야)

2.

그림 같은 단풍철 얼마 뒤면 끝나네
잡목 한 동 아니면 솔잎 한 동이면
(어릴럴 나무야)

아랫목에 발 뺀고 온 가족 새록새록
땀나무 지고 오는 그 기쁨 누가 알랴
(어릴럴 나무야)

산주인 이쪽으로 험레발딱 달려오네
오금아 날 살려라 서둘러 고갯 넘자
(어렷렁 나무야)

3.

웅단말은 산 많아 나무도 많을 텐데
장군재 나무꾼들 또 왔구나 또 왔어
(어렷렁 나무야)

어 참, 두 주먹 불끈 쥐며 저런……
이번엔 나무 한 동 절대로 어렵없네
(어렷렁 나무야)

날마다 소리쳐도 소귀에 경 읽기
나무에 미쳐 넘는 서둘고개 나무꾼
(어렷렁 나무야 쏘시개야, 상사뒤야 상사뒤야).

* 서둘고개 : 장군재에서 웅단말 장유 선생 신도비 남동쪽으로 200미터쯤 거리 쓰레봉으로 올라가는, 수암 지장골과 조남 웅단말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

* 장군재 : 조남동의 자연부락. 안쪽으로 웅단말이 있고, 이 마을 산자락에는 조선 중전기 문신 장유 선생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음.

긴마루 측백나무 앞에서

싸늘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듯
오랑캐 창칼에 병사들 스러지고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
억울하고 허망해 가슴만 치다가
황급히 쥐구멍 찾은 너 병사야
적의 말굽에 치어 귀가 잘렸는지

나는 한 그루의 푸르른 나무로
이 음산한 시절 한 곳에서 있다

내 결연 우거진 풀 가랑잎 쌓였다
이 속은 아늑하니 잠시만 숨어라
적 앞에 떳떳이 만세를 외치든지
노려보다 네 몸 산산이 부서지면
오랑캐에 쳐도 진정한 승리자
계급은 낮아도 참된 군인이다

나는 한 그루의 푸르른 나무로
이 칼바람에 혼만은 살아 있다

미친 바람에 흔들리는 기둥

나라 운명이 잎새에 매달려
거리마다 시체가 널려 있어도
저만 살려 골방에 숨은 대신들
떠도는 양아치 고아들 몇몇은
부잣집 종으로 가게 되었다지

나는 한 그루의 푸르른 나무로
패잔병 구했지만 훈장은 모른다

- * 측백나무 : 장곡동 진말초교 북녘 삼환 환진아파트 104동 150미터 거리의 야산 영웅대군 후손 묘지 옆에 있는 상록 침엽 교목. (바로 옆에 큰 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음).
- * 병자·정묘 호란 중 한 전란을 겪은 나무로 '꿇대할아버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인선왕후 생가터

상양산 자락 등지에 들어서니
까치들 날며 옛애기 들려 주네
대신들 나랏일로 드나들던 곳
손꼽아 기다린 아기 울음소리
청솔가지 검정숲 인줄 치면서
세이레 안엔 출입을 삼갔다네

눈망울 이슬처럼 해맑은 옥녀
삼일이 지나 이레가 지나가고
세이레 일곱이레 백일 돌잔치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나
명문 기문이 쌓아온 선덕으로
꽃 중의 꽃답게 잘도 자랐다네

심양 봉림대군 시중들기 몇 해
차가운 하현달에 향수 달랬지
이역만리 붓글씨 한 자 한 획
한글 궁체에 단아한 서풍으로
곱고도 순박함 가룩한 충효심
왕비의 덕 자비로움 쌓았다네

긴 세월 망각한 문명의 무계에

밤낮 짓눌리는 인선왕후 생가터.

- * 인선왕후 생가터 : 시흥시 장곡동 매골 연성래미안 아파트 241동이 들어선 자리.
현재는 표지판만 세워져 있음.
- * 상양산 : 인선왕후 생가터 뒷산.
- *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 광해군 10년~현종 15년) : 조선 제17대왕 효종의 정비. 아버지는 덕수(德水) 장씨(張氏) 우의정 유(維)이며, 어머니는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의 딸임. 1630년(인조 8년) 봉림대군(鳳林大君)의 부인으로 간택되어 풍안부부인(豐安府夫人)으로 봉해졌다가 병자호란을 당해 봉림대군이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심양(瀋陽)에 끌려갈 때 따라가 8년간 뒷바라지를 하였음. 제때 책봉받지 못하여 세자빈으로 사저(私邸)에서 왕자를 낳았다가,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왕비가 되고, 2년 뒤 정식으로 책명을 받았음.(현지 안내판 및 국사대사전)

고잔 하마터

큰어른 사시는 고잔 마을에선
동구밖 저만치 들어설 양이면
우선 명예욕은 땅에 내던지고
누구든 말에서 내려 걸어갔네
그 분은 서재에서 시 지으시니
본향산이 대신 지켜보고 있네

된바람 잔잔한 고잔 마을에선
아랫말 모퉁이 들어설 양이면
우선 자존심을 땅에 내던지고
누구든 말에서 내려 걸어갔네
하마비는 비록 길가에 없지만
고깃배 드나들며 살피고 있네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져
사람의 본분을 세워 주는 하마터.

- * 본향산 : 고잔 서남쪽에 있는 산.
- * 하마터(下馬址) : 시흥시 달월 입구 고잔1길을 따라 가면 본향산 북쪽끝 고잔 진 입로 포도밭 길가에 서있는 나무 부근. 고잔 안동김공헌주 공적비(安東金公憲周功績碑)에서 남동쪽 150미터 거리.
- * 하마비 : 王將, 聖賢, 高官名士의 탄생지나 분묘 앞에 세워, 일정한 지점을 가리켜 주고, 敬意를 표시하여 계급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도록 함. 비석 표면에는 '大小人員皆下馬'라 새겨 두는 것이 보통임.

월곳에는

싸느라니 싸느라니 초승달 비추이고
출렁출렁 바다물결 바위에 부서지고

달고지 메에 올라 사방을 살펴보니
바다로 내민 땅이 반달을 닮았네
하늘에 걸린 달이 누님을 닮았네

화안하니 화안하니 보름달 비추이고
넘실넘실 바다물결 한밤에 춤을추고

萬戶님 이 무렵에 등근 달 올라앉아
사라진 바다 보며 새 지도 그럴까
새로 난 큰길 보며 방긋이 웃을까

독가말 통심은 월동마을이지
상골과 궁골은 월서마을이지
예전엔 水軍萬戶 바다 지킨 곳

마전과 별말은 월동마을이지
웅고개 고잔은 월서마을이지
예전엔 줄다리기 즐겨하던 곳.

물새야 넌 알고 있지

—시화 신도시에서

한겨울 된바람에도 푸르르던
군자바다는 흔적마저 없는데
그 뱃길 자리엔 문명의 물결
젊은이 웃음꽃 피는 오이역
물새야 넌 알고 있지 그 갯벌
큰 배 드나들던 함현 포구도

밀물 뒤따라 신이 나 뛰면서
멍게 조개 잡던 개펄 자리엔
높이 솟은 아파트 상가와 교회
시화 마당 아이들 뛰노는구나
물새야 넌 알고 있지 그 바다
어살을 쳐 놓고 기다린 움막

하늬바람에 물결이 찰랑찰랑
고물간 이물간 바닷물 담겨도
노 저어 샷대 저어 건넌던 이
네온불빛 놀라 멀리 떠났는지
물새야 넌 알고 있지 그 어부
한배 탄 배나루 고주리 사람도.

* 함현(艦絃): 함줄이라고도 하며, 예전에 큰배가 드나들던 오이역 일대.

* 이물간·고물간: 이물간은 배의 앞자리, 고물간은 배의 뒷자리.

- * 배나루(舟津) : 정왕역 뒤 평안촌 북쪽에 자리한 마을. 군자염전 조성 때부터 배가 드나들지 못함.
- * 고주리 : 배가 정박해 있다는 것을 알려려고 배의 닻줄을 높이 올렸다 하여 높을 고(高), 배 주(舟)를 쓰며, 정왕역 북쪽 신포동 동쪽 마을임.

농바위 자리에서

채전밭 건너편엔 물결 찰랑찰랑
하늬바람 연달아 꽃잎을 스치다
사랑마을 농바위 마음도 흔드네
하하하 우습고나 허름한 장군복
나라의 회오리 온몸으로 막더니
농바위 속에서 숨죽여 숨었더니

때를 잃고 나면 꽃도 시든다는데
누가 다시 세우랴 군복 벗은 장수

어지러운 세상에 호걸 난다지만
나라에는 불충 백성에겐 실망감
흘러간 물길을 어떻게 거스르랴
하하하 우습고나 그 장수 한 말
좋은 때 오면 군복 다시 입는다
장수 오질 않고 농마저 사라졌네

때를 잃고 나면 꽃도 못 핀다는데
무슨 할말 있으랴 군장 감춘 장수

* 농바위 : 정왕동 사랑(沙浪) 뒤에서 있는 큰 나무에서 동쪽 150미터 거리에 있었으나, 큰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음. 조선조 어느 장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사랑(沙浪) : 사미 서쪽, 한전변전소 가까운 마을로, 예전엔 이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찰랑찰랑 드나들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사랑'이라 불렀다고 함.(김두연 통장)

水軍 萬戶 고을

정왕산 봉수 불빛이 번쩍번쩍
온 바다 순간에 숨죽어 있는데
승선하라 만호님 서릿발 호령에
잠든 개구리 망둥어도 깨어나고
뱀내 물길 초입엔 작은 군함이
앞바다엔 큰 군함 줄지어 서네

수군 만호 고을에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어여차 어여차 이 바다 지켜 왔네

건너마을에선 어른 아이 다 나와
힘 겨뤄 줄다리기 응원하는데
햅쌀 한 가마 송아지 한 마리
이긴 마을에 만호님 큰 상 내리니
바다엔 수군 함성 마을엔 웃음소리
오늘도 파도에 출렁거리고 있네

수군 만호 고을에선
월동 이겨라 월서 이겨라
어여차 어여차 한마음 되었네.

돌주리

나란히 줄 서네 산 위에서 돌들이
나란히 줄 서네 생금우물 약수에

산마루 꽃힌 표석 칠성별에 맞추고
하늘을 우리르며 사람을 사랑하면
새질서 참평화가 이곳에 찾아오리

산마루 꽃힌 깃발 바다로 손짓하니
큰희망 실은 배가 두둥실 등두둥실
그 위로 물새들이 날으며 춤추네

나란히 줄 서네 하늘에서 구름들
나란히 줄 서네 고깃배 바다에서.

옥구섬

물새들 먼동이 뜨기 전
산새보다 먼저 날아와
넉지시 전한 水宮 얘기
맑은 이슬에 방울방울
하얗게 맺혀 주는 옥구섬

아련한 물길 저 섬 너머
섬없이 내달은 파도가
고운 꿈 한 아름 안고 와
서녘 산자락 모래알마다
흙씬 안겨 주는 옥구섬.

옥구섬 해님이

해금강 해돋이 하 좋다지만
어이 견주라 서해바다 해님이
사라지는 미학에 한번 빠져 보면
그 황홀경 아침까지 이어지네
저 바다 쓸쓸이 떠나는 물새들아
하염없이 보내는 이 마음 어이하라

경포대 해돋이 하 좋다지만
어이 견주라 옥구섬 저녁 정취
동녘으로 출렁 달려가는 오징어배
진부령 넘어와 저 해님을 보라
노을 속에 불태우는 온갖 번뇌
조용히 묵상하는 섬들을 보라

일출봉 해돋이 환호하며 맞지만
붉은 희망 안고 이내 떠나야 하네
저녁놀 하늘끝 물새들 따라가면
어스레한 미로 신비감 짙어 오네
너는 저 바다 지켜 주는 파수꾼
봉수산 눈짓해도 한 곳에 있어라.

옥구정

큰 바람 불어올까 밤낮 뱃길 살피니
가는 배 오는 배 웃으며 드나들고
소래산 맑은 눈빛 서해 섬 옹기종기
이 산마루 홀로지만 외롭진 않아
첫배가 떠난다 똥똥 큰북 쳐라
하늘에 무사귀환 기도하는 옥구정

저 섬 너머 가물가물 또 다른 섬에
바다의 시 한 수 물결에 띄워 볼까
하늬바람에도 거친 물결 잠잠하니
한사리엔 월곶포구 흥취 넘실대리
만선배 들어온다 똥똥 큰북 쳐라
하늘에 두 팔 벌려 환호하는 옥구정.

생금우물

우물은 길손을 위해 샘솟고
옹달샘은 노루 위해 샘솟네
착한 나무꾼은 와서 마시게
죽률에서 나무하러 십리길
나무 한 짐에 쏟은 땀방울
우물 안 꼬꼬닭은 잘 안다네

초롱 눈빛 예쁜 닭 한 마리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오니
금은방 눈에 닭털이 금조각
반달이 속의 닭은 황금덩이
흥부같이 천복을 받을 사람
땅을 사고 새집을 지었다지

큰부자 되려거든 와서 마시게
너도 나도 찾아오는 생금우물.

- * 생금우물 : 조선조 말 시흥시 죽률동 김 모씨가 옥구섬에 나무하러 갔다가 갈증이 나서 산 속 샘으로 갔더니, 그 속에 닭이 있어 보자기에 싸서 집에 가져왔는데, 보자기에 떨어진 닭털이 빛나 금은방에서 확인한 바 금조각이라 했고, 반달이 속의 닭은 금덩이로 변해 있어, 그것을 팔아 땅을 사고 새집도 지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함.(현지 안내판 참고)
- * 죽률동 : 정왕동 동쪽에 있는 마을. 죽률동 597번지에는 생금우물 전설과 관련된 김창관(金昌寬, 1845~1929) 씨가 살았던 생금집이 있음. 현재의 집은 1913년 개축한 것이라 함.

오이도 봉화터

봉수꾼이 예전엔 망을 보더니
정왕산에 옮겨간 그 훗날에는
소나무 몇이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맞으며 바다 지켜 가네
웁크하면 곧바로 응해 오는 눈짓
해운산도 성산도 모두 이상 없네

봉수장과 봉수꾼 친형제 같고
오장은 졸병에게 호랑이 같아
망보는 눈빛에 온누리 평온해
바다와 산들도 단잠을 잔다네
개화봉수 京畿水師에 불빛 번쩍
승정원 도승지 임금께 아뢰야지

별들은 소근대고 개들은 새록새록
바람 잠잠하니 아늑해진 온누리여.

* 오이도 봉화 : 오이도 살막 뒷산(북),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조선시대 봉화가 있었는데, 이곳 봉수를 옷애(吾叱哀)라고 하여 남으론 남양 무응고리(無應古里)- 그 이후는 남양 해운산(海雲山), 북으로 인천 성산(城山 = 문학산)에 응하다 가, 영조대에 봉수를 정왕산으로 옮겼다고 함. 『세종실록지리지』 권148 및 여지도서(輿地圖書 영조 35년 안산군 봉수조) 참조.

군자봉의 노래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난 봉우리
멀리서 가물가물 섬들과 눈짓하네
단종왕 지은 이름 군자산 군자봉
많은 덕 쌓아올려 더욱 우뚝하여라

이름은 셋이요 봉우리는 하나
시월 상달 동제 준비 한마음

한많은 세월에 자라 온 느티나무
초승달 빛살 아래 옛얘기 들려 주네
경순왕 사랑노래 간직한 저 영산
안씨빈 가슴 속에 사무친 한이여라

서편에 머리 두어 서령산 군자봉
사람들 넓은 마음 서해바다이어라
구준물(沼援伴) 뒤일을 가슴에 품어 주니
성난 하늬바람 여기선 잔잔하네.

환자산(還子山)

내년 요맘때 어김없이 갚으려니
벼 몇 섬만 빌려 주소서, 저에게

우물이 말라 버린 흉년이 이어져
황달기 아이들 두고 볼 수 없지
등근 알사탕으론 달래어도 허사
몰어 몰어 군자 고을 사창을 찾아
코가 땅에 닿도록 굶신거리야지
눈길에 미끄러지며 넘는 환자산

가져 왔나이다 곧 벼 이자 붙여
약정한 날에 틀림없이 갚나이다

비 내림 때맞추어 모 심고 김 매
구준물 들녘 황금물결 일렁일렁
군자봉에 올려퍼지는 풍년가
손꼽아 기다렸네 곧 벼 갚는 날
지게 작대기 발 맞춰 땅 짚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는 환자산.

* 환자산(還子山) : 還子是 고을의 사창(창고)에서 나라의 곡식을 낀 백성이 가을에 추수한 다음 일정한 이자를 붙여 갚는 일을 말하는데, 환자산은 군자초교 북녘 산으로, 어려운 백성이 빌린 곡식을 갚기 위해 이 산을 넘었다고 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사미 똥골

알나리 깔나리 나는 보았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저 소리
동네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

옥색 비단신 신지 않았으니
옥녀는 아니고 시녀일 거야
밭 매던 아낙들은 귀엣말로
우리 모두들 입조심을 하세
옥녀는 높은 산 위에 있으니
손금 보듯 마을 사정 알겠네

얼네리 풀네리 저기 보이네
다복술 뒤에 시녀가 보이네
동네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

말 탄 채 지나는 군자 낭군
시녀는 불일 보다 훑쳐 보며
늪틈한 모습에 흘랑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잠이 들었나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떠 보니
사미 나무꾼이 옆에 섰다네.

* 사미 똥골 : 옥녀봉 서쪽 골짜기로, 옛날 玉女의 시녀들이 산에서 몰래 이곳으로

내려와 방노하고 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 얼네리 끝네리, 얼레꿀레는 알나리 갈나리가 변한 말.

사미 길쌈노래

옥녀님이 내려와 비단을 짜네
에헤 에헤여라 에헤
사미에서 짠 비단 사미단이요
소주에서 짠 비단 소주단이라

오른쪽 다리 밀었다 당겼다
위아래 튼실한 은빛 눈썹줄
에헤 에헤여라 에헤
날실은 사랑 찾아 왔다갔다
씨실은 껴안아 한몸이 되니
백학이 내려와 꿈 일렁이네

말코는 신이 나 비단을 감고
에헤 에헤여라 에헤
옥녀는 상제님께 사미단이요
낙타 등엔 소주단 서역행이라

목련꽃 얼굴 하얀 마음씨로
섬섬옥수 고운 옷감을 짜네
에헤 에헤여라 에헤
군자봉 늠름한 활랑님 낭군
온 정성을 다 담은 이 비단

전해 드릴 사람 누구 없는가

에헤 에헤여라 에헤, 에헤여라.

- * 사미(紗美) : 거모동 옥녀봉 아래(남쪽) 마을로, 천제의 딸 옥녀가 옥녀봉에서 가끔 내려와 비단을 짰다는 마을. (시흥군지 - 시흥의 지명유래)
- * 눈썹줄 : 배틀의 눈썹노리에서 아래로 잉앗대를 잇는 실.
- * 북 : 날실 틈으로 왔다갔다하며 씨실을 풀어 넣어 주는 배틀의 한 부분.
- * 말코 : 배를 감는 배틀의 한 부분.
- * 소주단(蘇州緞) : 소주는 중국 江蘇省의 유명한 비단 생산지로 옛날 배 짜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며, 소주단(緞)은 소주산 비단.

사미 굴렁바위

허기진 범귀신이 엮치 있으라
먹자는 놈 달라는 놈 못 당해
담력이 센 가마꾼도 굽실굽실
코 앞에 진수성찬 진상해야지
땅에 달라붙은 끈끈이 발바닥
스르르 떨어져 풀려나게 되네

바위야 옥녀봉 뒤편길 바위야
불도저에 겁이 나 달아났느냐

배고픈 범영혼 외면한 허물은
대감집 마님 지혜로 풀어야지
빌게나 나직이 엮드려 빌게나
상여꾼도 더 공손히 절한다면
범귀신 노여움 순간에 사라져
살랑바람 벗하며 떠나게 되네

바위야 엮드려 도사린 바위야
대공포가 겁이 나 굴러갔느냐.

*굴렁바위 : 예전에 사미에서 옥녀봉 옆을 지나는 고개 동쪽에 바위가 하나 있었으나, 군부대로 가는 길을 넓힐 때 없어졌다고 함. 이 바위에는 여러 모양의 짐승 발자국이 나 있었다는데, 가마꾼이 그 앞을 지날 때면, 발이 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함. 가마에 탄 어느 대감집 마님이 내려서 바위를 살펴보니 그 바위

엔 굵주린 범들의 혼이 서로 엉켜 있음을 알고, 가마꾼들에게 가다가 먹일 점심을
그 바위에 차려놓고 엎드려 빌게 하니 땅에서 발이 떨어져 떠나갈 수 있었다는 것
임.(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구준물

우물이 아홉이라 구정동이면
우물이 하나라면 일정동인가

논바닥 갈라진 석 달 가뭄에
하늘만 보며 원망할 순 없어
우물을 파네 한 우물만 파네
수맥을 잘 본다는 당 서방은
힘이 황소 같아 일을 잘하니
오늘은 우물 하나 샘 솟으리

우물이 아홉이라 구정동이면
우물이 셋이라면 삼정동인가

아내가 길어온 그 먼 사미 물
얹아서 받아 마실 수만 없어
우물을 파네 한 우물만 파네
물을 퍼낼수록 시원한 그 맛
높은 산 옥녀님 살며시 내려
남몰래 한 모금 목을 적시리.

* 당 서방 기씨 : 구준물에 당씨와 기씨, 이씨 등이 처음으로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 사미 물 : 이웃 사미마을 우물에서 길어온 물.

복고개

어두운 인생길 촛불 밝힌 우리
이 고개 넘으며 오복을 받아요
십장생 지수꽃 주머니 안에는
시부모님 새 돈을 넉넉히 넣고
사군자 고결한 꽃 주머니 안엔
시누이 연지와 분첩 챙겨 넣어
무지개 꿈을 안고 넘는 복고개

장인장모 저기서 아직 계시니
뒤를 돌아보며 인사해 드려요
처제 자수책갈피 장모 비단신
장인 도장집 전통문양 매듭줄
이 밖에도 사랑과 지혜 인내심
빠짐없이 챙겨 가니 한 보따리
신혼부부가 안고 넘는 복고개

- * 복고개 : 거무개와 사미 사이의 고개로, 신혼부부가 이 고개를 넘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내려와 거모, 군자, 죽률지역 신혼부부들이 이 고개를 넘으며 복을 기원했다고 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 * 십장생(+長生) : 오래 살거나 죽지 않는 것 열 가지. 즉 태양, 구름, 물, 산, 돌, 소나무, 학, 거북, 사슴, 불로초 등으로, 베갯머리와 병풍, 문방구 등에 그려 넣거나 수를 놓음.

영웅대군(永膺大君) 묘역에서

아들로는 소헌왕후 여덟 번째
부왕의 사랑을 혼자만 차지해
음악 예술 아버님 닮았답니다
여섯 조상 찬양한 용미어천가
염소들이 함께 목청 높입니다
사슴들도 리듬 맞춰 뛰놀니다

아버님은 한밤에 별로 오시어
새벽녘 실안개로 떠나셨다고
바람이 풀잎에 속삭여 줍니다
부인과 자손 증손자의 저승길
장명등이 환히 불 밝혀 준다니
이 겨울에도 마음 흐뭇합니다

영릉 계신 어머님 자비로우심
구준물 우물에도 축복해 주고
들녘엔 황금 물결 일으킵니다
망주석 향로석 늠름히 서 있고
과수원 가지마다 풍요 매달아
경효재 제수는 늘 푸짐합니다.

* 영웅대군(永膺大君, 1434~1467) : 세종대왕의 여덟 번째 아들로 자는 명지(明之), 호는 서곡(西谷), 이름은 염(琰), 시호는 敬孝仁. 세종 23년(1441)에 영흥대군(永興大

君), 그 뒤에 역양대군(歷陽大君), 영웅대군(永膺大君)으로 개봉됨. 영웅대군은 세종의 총애를 받아 그의 동별궁에서 세종이 서거(1450년)하셨고, 그는 1463년 '명황계감'의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등 부왕처럼 음악과 글씨, 그림에도 능했음. 그가 별세(세조 12년, 1467)하자 양주(楊州) 군장리(郡場里)에 매장했다가, 광무 4년(1900)에 첫째부인 해주 정씨(海州鄭氏)와 둘째부인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묘와 함께 지금의 묘역으로 이장되고, 1968년에는 셋째부인 연안 김씨(延安金氏)와 아들 청풍군(靑風君), 손 화림정(花林正), 증손 흥선부정(興善副正), 흥정부수(興貞副守)의 묘까지 옮겨왔음. 묘역 입구의 재실(敬孝齋)은 1969년경에, 그 위쪽 사당(敬孝祠)은 1997년 건립했으며, 신도비와 묘역은 시흥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음. (국사대사전 및 현지 안내판)

배우물

상앗대 밀며밀며 포구 떠나니
갈증은 이미 처음부터 시작돼
이물간 고물간에 가득 채웠다
삼킬 듯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물로 돌아와 마시는 꿀맛을
갈매긴 알고서 날아와 춤춘다

배우물 보인다 닳줄을 던져라
오늘을 위해 얼마나 참았더냐
한 줄로 서라 쿵쿨 물 솟으니
마시자 열두 조롱박이면 어때
마음의 목마름도 다 씻어내면
한배 탄 우린 너와 나 하나다

우물 자린 이제 벼이삭 하늘대고
집오리들 흘러간 노래만 부른다.

- * 이물간 : 이물은 배의 머리(船首)이며, 이물간은 그 바닥.
- * 고물간 : 고물은 배의 뒤쪽(船尾)이며, 고물간은 그 바닥.
- * 배우물 : 조선시대 이 마을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을 때 선원들이 이 마을에 자주 들러, 물맛이 좋고 시원한 이 우물물을 마시며 갈증을 풀었다고 함. 이 마을은 원주 원씨 陰城公派 중 元繼儉(이조판서 역임?)이라는 분이 관직에서 물러나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망고개

마을 사람들 모두 흙을 저 날라
그 고개 막은 고개 만든 고개래
하늬바람에 떠밀려 나들던 영혼
자존심 높여 준 좌청룡 우백호여
일꾼들 땀방울 흘려 높아지더니
이제는 큰길이 열려 낮아졌구나

삽질과 가래질로 효심 끊어 모아
그 고개 높인 고개 만든 고개래
싱그러운 꽃대 비바람에 멍들고
갓핀 꽃잎 회오리에 시달리더니
이젠 주봉 눈빛 한우물에 비추고
온 마을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네.

- * 망고개 : 조선 중기의 문신 文陽府院君 류자신의 6자인 류희광(柳希亮, 1575~1628)의 묘를 군자초등학교 뒷산으로 옮겨 올 때, 본래 낮은 고개였던 이 고개를 흙으로 높여 좌청룡 우백호 지형을 만들었다고 함. 처음엔 '막은고개'라 했는데 후대에 망고개로 발음이 바뀌지게 됨.(시흥군지-시흥의 지명유래)
- * 한우물 : 안도일과 밖도일 사이 논 가운데 있는 우물 또는 이 우물에 연유한 마을 이름.
- * 주봉 : 풍수로 보아 산소 뒤 가장 높은 산봉우리.

지계의 노래

1.

에헤야 지계야 이 어인 일인가
태어날 땐 너와 내가 남남인데
한마음 한몸인 양 살고 있으니

아옛한 주인마님 눈치보느라
헛간에서 때로는 처마밑 신세
에헤야 팔자치고 이상도 하지
봄철 꽃가지 여름엔 참외수박
막내딸 혼수감을 네가 저 오면
대청에 모시려 정중히 맞았지

살미 긴배미 도랑물가 논길을
작대기손 들풀을 헤쳐 가는데
백옥 이슬방울 바지 젖어 오면
너의 주인은 달랑대며 콧노래
뒤에선 지계밭목 화답해 주니
아침 나들이는 상큼해 좋다네

2.

에헤야 지계야 나를 짐 많구나
오자봉 운흥산 불러 위에 신고

꽃향기 새 소리 다 지고 나르네

이웃의 아픔과 궁상스런 일들
지고 나와 벼랑에 모두 부리고
찢레가지 외진 숲길을 헤쳐와
꼴머슴 업혀 외나무다리 건너
꽃나무 향기 땀감 한 동 신고
에헤야 지게야 집 안에 부리자

여보게 이 짐 저 짐 가릴손가
새참밥 혼수짐 쌀가마 떡시루
이런 짐들은 콧노래 흥얼흥얼
채전밭 개똥 쇠똥 저 나를 댐
방글 방글 개똥참외 웃어댔지
지게야 너와 나는 평생 동반자

3.

에헤야 지게야 어디를 가느냐
짧은 발목으론 소래산 군자봉
긴 발목으론 냉겨들 호조별관

나분들 큰 모춤 한 짐을 지고

논바닥 짚고 부들부들 서더니
땀감 지고 서둘고개 넘어가면
오금아 날 살려라 쏜살같았지
뱃줄에 묶여도 너는 자유하니
목발 치며 의젓하게 나아가세

에헤야 지게야 도끼를 없애라
밭채에서 곰곰이 궁리해 보면
찍어 없앨 것 수도 없이 많네
튼실한 갈퀴 하나는 없어야지
스치는 바람 떠가는 몽게구름
흐르는 시간 다 끊어모아 오자
지게야 밭채에 듬뿍 담아오자

4

지게야 우리 뱃줄에 묶인 인연
멜빵에다 두 어깨 달짝 붙이고
두 발 고르게 바른길 걸어야지

지게야 작대기로 목발을 쳐라
산꽃 방실방실 시냇물은 졸졸
산자락 패랭이꽃 눈짓해 주면

주인은 엉덩이춤 너는 배꼽춤
건너편 장군바위 손뼉쳐 주니
지게야 작대기로 목발을 쳐라

지게야 긴다리 자랑을 말거나
저 산이 한 팔로 힘껏 내치면
떼굴떼굴 저 아래 뒹굴린다니
짧은 다리도 자랑은 금물이네
벧단 짐 나르다 세울 곳 없어
공공 소리내는 이 지켜보았지

- * 살미 : 미산동의 자연부락. 마을 앞에 넓은 호조벌이 펼쳐져 있음.
- * 냉겨들 : 거모동의 거무개에 있는 들판.
- * 호조벌판 : 물왕저수지에서 신현동 걸쭉에 이르는 넓은 들판.
- * 나븐들 : 물왕저수지 아래에 자리한 들 또는 광석동의 자연부락.
- * 서들고개 : 조남동의 웅단말에서 안산 수암동의 지장골로 통하는 고개.
- * 장군바위 : 소래산 서쪽 부분에 있는 큰 바위.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 바다를 건너와 이 일대에서 진을 치며 있었다고 전해 내려옴.

시흥 산타령

1.

어서 오라 산이 불러 올라가니
소래산은 경치 좋고 물 좋더라
생매산엔 새 많고 토끼 많더라
산아 산아 백두산 너만 산이나

방울산엔 방울새 노래할 만한데
양지산엔 양지꽃이 웃을 만한데
패랭이꽃 개부랄꽃 저리 피우나

산아 꽃술에 취한 너 소래산아
구름 조각 위에 두둥실 떠가다
하늬바람 타고 올라 널 만나라
산아 산아 금강산 너만 산이나

2.

이산 저산 야호 야호 메아리쳐
쌍태봉 원추리꽃 하늘하늘대며
사미에서 길쌈하는 옥녀님에게
무시로 꾸벅거리며 눈인사한다

관모산아 모자 벗고 인사 가렴

운흥산 소나무도 함께 가 보렴
망재산 학미산 매봉산아 예헤~

군자봉 산자락 금낭화 패랭이꽃
본향산 옥구산 오자봉 자락에는
할미꽃 처녀치마 며느리밑씻개
산아 산아 한라산 너만 산이나

- * 생매산 : 은행동과 신천동, 대야동에 걸친 산인데, 은행택지 개발로 산이 없어졌음.
- * 방울산 : 뒷방울 저수지 일대의 산.
- * 양지산 : 안현동과 무지동 사이의 산.
- * 쌍태봉 : 사미 옥녀봉 북쪽의 산으로, 봉우리가 똑같은 형상을 이룸.
- * 관모산 : 산현동 골월마을 서쪽에 자리한 산으로, 관(모자)을 쓴 형상임.
- * 운흥산 : 물왕저수지 북쪽에서 논곡, 도리재에 걸친 산. 처음엔 은행산이라 했음.
- * 망재산 : 방산동 방골 뒷산.
- * 학미산 : 포동 뒷산.
- * 매봉산 : 강희맹 선생 묘역 뒤 동남쪽 산.
- * 본향산 : 월곡 고잔 남쪽의 산. 주민들이 산 정상에 터주가리를 세우고 동제를 지냈음.
- * 옥구산 : 정왕동 옥구공원 일대의 산.
- * 오자봉 : 쓰레봉이라고도 하는, 마산(麻山)의 서쪽 줄기.

3.
산아 산아 너 일봉산 군자봉아—
소나무 숲에선 산새들 노랫소리
산골짜기 물 소리 더위를 쫓으니

바위야 흐뭇해 방긋 웃음짓느냐

성황제 뒷전가락 열씨구 덩더꿍
산꽃향 취하여 굽이굽이 오르면
진달래 때죽나무 갈참목 반긴다

아침저녁 새 소리 바람 소리 따라
꽃잎은 피고지고 인결은 오가고
구준물 무지내물 밤낮 흐르면서
산들의 눈짓 화답하며 노래한다

4.

산아 학머리 조아리는 학미산아
배터로 오르는 통통배 보이더나
치솟은 아파트 유리창문 사이로
아이들 컴퓨터 게임 훑쳐보느냐

왜군들 피눈물 마산의 피흘고개
세 번 넘어져 삼년 산 삼년고개
봉홑불 봉화산 송골매 매봉산아

환자산 넘어 빌린 곡식 다 갚고

결혼해 행복하러 넘는 복고개야
한 곳에만 뿌리내린 조선 소나무
맑은 웅달샘에 얼굴 비춰보게나

5.

산아 산세따라 인걸이 난다는데
장군바위 아래선 누가 태어나고
망고개 높여 대감벼슬 높아졌나
매봉아 사숙제에 여쭙어 보게나

내원사 아미타불 부르고 부르다
약수터로 옮겨가 목줄을 적시면
마음속 안개도 말끔히 걷힌다지

산아 야호소리 어디서 들리더냐
바위가 즐지어 지켜 주는 돌주리
홀아비꽃대 며느리배꼽 꽃 피니
산아 산아 설악산 너만 산이냐

- * 마산(麻山 또는 麻河山) : 묘재에서 새미, 화정동과 양상동을 잇는 산.
- * 피흘고개 : 묘재와 사티골 사이의 고개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관군에게 크게 패한 곳.
- * 삼년고개 : 매체기와 장낙골 사이의 고개로, 이곳에서 세 번 넘어지면 삼 년 더 산다는 말이 전해 음.

- * 봉화산 : 오이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옛날에 '옷에 봉수'가 있었음
- * 환자산 : 군자초등학교 뒷산.
- * 복고개 : 거무개와 사미 사이의 고개.
- * 망고개 : 군자초등학교와 구장터 사이의 고개.
- * 돌주리 : 옥구산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일대의 마을.

한우물

상석을 그만 우물 속에 던져
스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한이 맺혀 솟아나오는 샘물
고개 높여 명당을 만들고도
스님이 가져온 상석이 작다
잠시 화살 눈빛 쏘아댔다네

산소 자리 높은 데 차지했고
복현무 남주작 마음에 드니
큰어른이 열 번은 참아야지
하나는 경복궁 하나는 산사
문화 류씨 스님과 뜻이 달라
어르신 꾸중 번뇌불 붙었네

참아야지 열 번도 참아야지
류씨 장군하면 스님은 명군
이 한밤 장명등불 어찌하라

* 한우물 : 거모동 안도일과 박도일 사이에 있는 우물. 문화 류씨 문중에서 류희량(류자신의 6자)의 묘를 쓸 때 좌우의 낮은 고개를 흙으로 높여 좌청룡 우백호를 제대로 갖추었으나, 스님이 가져온 상석이 너무 작아 스님을 꾸짖자, 울분을 참지 못한 스님이 그 상석을 우물에 내던졌다는데, 그때부터 이 우물을 스님의 한이 맺힌, 한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함.(시흥군지- 시흥의 지명유래)

시흥고등학교 교가

1.

아침 해 동녘에서 밝게 열려 오니
희망의 새길 손잡고 열어가세
걸음걸음마다 발자취 크게 남겨
따르는 후배에게 길 환히 밝혀 주리

물왕물 맑은 하늘 마음 가득 담아
아, 영원하여라 시흥고교여

2.

매봉산 송골매 나래 펴 오르다
소금밭 누비며 서해로 웅비하듯
나날이 푸른 꿈 튼실히 키우며
무지개 너머로 높이높이 날아가리

물왕물 맑은 하늘 마음 가득 담아
아, 영원하여라 시흥고교여

3.

사숙제 깊은 지혜 연꽃향 스며 오는
아늑한 배움터에 우리 다 모여
가사미산 그 기상 새로이 이어받아

눈부신 꿈나무 온 누리 비추리

물왕물 맑은 하늘 마음 가득 담아
아, 영원하여라 시흥고교여

衿陽의 논밭둑을 걸으면 (2인 이상 낭송용 장시)

1.

먼동 빛을 업고
금양의 논둑길 걸으면
私淑齋의 말씀들이
이슬방울에 빛나고 있다

衿陽雜錄 책갈피에서
뛰어나온 지혜를
천의 얼굴, 만의 얼굴들이
머리통 가득 채운 무게로
고개 숙이고 있다

愚直타, 비웃으랴
발보리 버젓이 고개 들었지만
아랫배미 논벼는
겸손히도 고개 숙이고 있다

이젠 고개 들어도 되리
낮은 데 있다는 것뿐
허물일 순 없다

사람들이 다 바라거든

알곡으로 돌려 주면 된다
알몸째로 던져 주면 된다
새끼를 꼬든 명석을 짜든
금양 선비 과거 길
새끼총 짚신을 삼든.

2.

文良公은 밝히었다
나라 본바탕은 백성이니
농사 시기 빼앗지 말라
소출 나면 백성이 교화된다

농서 한 장 한 장
글귀 한 자 한 자
쓰인 대로 밝힌 대로
씨뿌리고 가꿨거늘
나락 뒤주 비어 있다
햇빛 흐려진 탓인가

士農工商이 물구나무섰다
商工農士는 되겠는지
찬 손 쟁기, 더운 손 호미 쥘

철부지 농투사니는
뒷자리에만 처져 있느냐

周王은
농사일에 가락 붙여
成王 始務할 때
樂官에게 부르게 했다

姜希孟이 農書를 쓴 건
오직 經世濟民의 뜻
聶夷中の 詩인들 이에 따르라
詩經·書經에도
농사를 근본으로 삼았다

금양 황폐한 논밭
큰비 오면 한강 되고
가물면 사막되었다
세금 걱정 태산일 때
서울 使者 접대 잘하란 불호령에
그만 농사 시기 잃었구나

관창곡 꾸어다 풀칠은 했다만

深耕할 힘은 어디서 꾸었을까
밀식할 씨앗조차 어디서 흙쳤을까

허기진 일꾼들 밥 세 그릇
국 한 그릇, 나물 한 그릇
한 끼 다섯 그릇 안 올리면
불 일 있다, 배고프다, 골 아프다
피병까지 부리누나

3년 흉작에
공물 덜어 준 양반 있었더냐
安山은 해산물
과천은 민물고기를
衿川은 꽃게를 올려야 했다

民戶 부담 어떠했으랴
보리밥 몇 그릇에 자갈밭을 넘기고
찰벼 몇 되에 통배미논도 넘기고
끓을 적마다 팔아 넘겼다지만
금싸라기 고래실논만은 지켰다지
풍년 들어 감사할 때
임금님께 그 은덕 다 돌렸다지.

3.

위론 天時, 아래론 地理 살펴
씨뿌림 때를 맞춰 살았지
김매기 횃수라도 늘렸을 때
하늘인들 재앙 내렸을까

하늘과 손 잡으면
주리던 백성은 다시 살아나고
한 알 씨앗 여든하나 되었다

가뭄과 홍수는 큰 근심이지만
눈보라쫓은 작은 근심이었다
바람도 때를 맞춰 불면
마파람 하늬바람도 이로웠다

불러 보면 동북 양달에서
대답한다 서남 응달에서
동북바람 비 내린다 해도
衿陽비는 서풍이 모셔왔다
큰비는 남풍이 묻혀 오고

서울 서풍, 강릉 동풍

음양이 화합하면 곡식바람 일었다
거센바람 돌개바람 미친바람에
동풍에다 금줄 쳤으니
벼이삭 숨들려도 되었다

기름진 논엔 일찍 모심고
메마른 논엔 늦게 모심어
하늘 땅, 절기와 곡식
天心 人心 조화되는 묘미 따라
가을이면 上農 오르고
개으른 자 下農 된다
세상 이치 다 그런 거다

4.

털털털, 경운기 소리에
벼이삭들 고개 들었나
탈탈탈, 트랙터 소리에
조대가리 먼지 털었나

알암 굵던 아가씨
삭정이 불 지켰으면
부지깡이 그 뜨거운 불꽃

변강쇠를 쫓았느냐
因習 지질렀느냐

배부름과 굶주림
호미손에 매달렸다
이랑끝 아물아물
흙에 땀 더 흘리라 한다

채전발 공이손은 어떠하라
하늘뜻 별을 보며 헤아릴까
앉을 자리 七星에 맞출까

장사치 도시문화
쌀향기로 꽃피운다
빌딩숲 디스코 가락
금송아지 눈 뜬다

개구리는 뛰어도 되리
새들도 부르면 오리
우린 이제 노래만 하자

낮노래 개울물과 같이 부르고

밤노래 별들과 같이 부르자
뱀내·수암내·안양내 잔잔한 노래
농부들 부형소리 높구나

선소리꾼 앞소리에
뒷소리꾼 따라 부르니
지난해 얼씨구, 올해도 절씨구
연년이 풍년줄볼 보름 오른다

詩소리 노랫소리
청송이마다 익고
포도잎새 너울춤 춘다
한 마리 강아지 뛰니
암소는 울고
새김질 박자 맞추는구나

衿陽 그 너른 별관
물줄기 거스르면
에덴은 나타날까
카인 만나면
아벨도 볼 수 있을까
논밭 걸어가면

私淑齋 말씀 들린다

황금 일곡들

가을 지혜로 익어 있다

- * 금양(衿陽) : 경기도 시흥지방을 비롯하여 광명·안양·과천과 서울의 영등포·동작·금천·구로구 등 지역을 금양이라 불러오다가, 조선조 太宗 13년에 금천(衿川)으로 바뀌 불렀음.
- * 사숙제(私淑齋) : 강희맹(姜希孟) 선생의 아호. 세종 29년 別試 급제, 세조 9년 진헌부사로 明나라를 다녀왔으며, 그후 이조판서 등을 역임함. 저서로는 『금양잡록』, 『사숙제집』, 『촌담해이』 등이 있음.
- * 『금양잡록(衿陽雜錄)』 : 강희맹 선생이 지은 금양지방 농사에 관한 책.
- * 문량공(文良公) : 강희맹 선생이 사망 후에 내려진 시호.
- * 알밤 : 시흥지방의 방언. 알밤을 말하는데, '밤'에서 'ㅂ' 탈락 현상임(시흥군 지- 지명유래)

序

| 박영만 시 작곡 공연 일람 |

공연 연도순

1993. 11. 26. 「하우고개(작곡 홍권옥)」

호암아트홀 - 제44회 한국작곡가회 신작발표회

1994. 4. 21. 「북한산 메아리(작곡 박찬석)」

세종문화회관 - 서울 정도 600주년 94창작 기념 연주회

1994. 9. 23. 「망원정(작곡 고영필)」

예술의전당 - 서울 정도600주년 가곡제 '서울이여 영원하라'

1994. 11. 28. 「호박덩이(작곡 최태숙)」

김해 김수정아트홀 - 김수정 신작발표

1995. 2. 14. 「파란 악보(작곡 김종덕)」

부산시민회관 - 새로운 가곡 작곡 발표회

1995. 3. 7. 「하우고개(작곡 최태숙)」

부산시민회관 - 한국음악지도협회 작악회 '새로운 작곡 발표회'

1995. 6. 17. 「저녁놀(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제14회 김정양 작곡 발표회

1995. 8. 9. 「파고다 공원에서(작곡 정원상)」

예술의 전당 - 광복 50주년기념 제2회 '서울 창작가곡제'

1995. 9. 30.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인천시민회관 -제14회 음악연구회 정기음악회
1995. 10. 14. 「깊신(작곡 김성광)」
 문예회관대강당 --가을맞이 신작가곡의 밤
1995. 11. 16. 「파란 악보(작곡 김종덕)」
 김해농협예식장 --김종덕 작곡 모음 새로운 가곡 연주회
1996. 4. 27.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인천영창피아노홀 --12인의 새가곡집 출판기념 공연
1996. 7. 15. 「다듬잇소리(작곡 김창식)」
 세종문화회관 --96서울창작 가곡제 '겨래여 영원하라'
1996. 10. 9. 「호박덩이(작곡 김정양)」
 대전시민회관 --경인·대전·충남 교류 '신작가곡의 밤'
1996. 10. 19. 「은행정에 오르니(작곡 김정양)」
 「생매산아, 생매산아(작곡 김정양)」
 「소래산 약수터(작곡 김정양)」
 「미산동(작곡 김정양)」
 「소래산 장군바위(작곡 김정양)」
 「각시풀 모내기(작곡 김정양)」
 「시흥 버스를 타고 가며(작곡 김정양)」
 「꿈 봉우리(작곡 김정양)」
 「파란 악보(작곡 김정양)」

1996. 10. 19. 「북한산 메아리(작곡 김정양)」
「시흥 마당에(작곡 김정양)」
시흥종합복지회관 —제1회 시흥향토시 창작가곡발표

1996. 10. 26. 「흰 나비아(작곡 김정양)」
「지붕위의 둥근 박(작곡 김정양)」
「은행정에 오르니(작곡 김정양)」
「다듬이 소리(작곡 김정양)」
「꿈봉우리(작곡 김정양)」
「호박덩이(작곡 김정양)」
「파란악보(작곡 김정양)」
「쑥 캐러 가자(작곡 김정양)」
「소래산 약수터(작곡 김정양)」
「저녁놀이(작곡 김정양)」
「농민의 노래(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김정양·박영만·박남권 3인 음악발표회

1997. 5. 26. 「살미 앞들로(작곡 김종삼)」
「파란 신호등의 길(작곡 한정림)」
「주막거리(작곡 김종삼)」
「무지동(작곡 이삼성)」
「신안주씨 공덕비(작곡 한정림)」
「술개고개(작곡 문지예)」
「하우고개(작곡 최태숙)」
「천지 물소리(작곡 김규현)」
「호구탑은(작곡 김규현)」

1997. 5. 26. 「땅에는 소주(작곡 문지예)」
시흥종합복지회관 - 제5회 물왕예술제 향토시 창작가곡제
1997. 9. 6. 「서울 마당예(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음악연구회 정기음악회
1997. 10. 7. 「살미 앞들로(작곡 김정양)」
「호박덩이(작곡 김정양)」
국립극장 - 한글사랑 세종음악회
1997. 10. 22. 「목련의 연정(작곡 채완수)」
전북예술회관 - 97 신작 가곡 연주회
1997. 11. 8. 「망원정(작곡 고영필)」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인천영창피아노홀 - 작곡가 12인의 새 가곡집 출판기념회
1997. 11. 12. 「원두막(작곡 정연근)」
서울연강홀 - 신작가곡발표 '내 마음의 노래'
1997. 11. 15. 「독립문(작곡 김정양)」
「매화꽃 마을(작곡 김정양)」
「무지동(작곡 김정양)」
「학미산에 오르니(작곡 김정양)」
「배 터(작곡 김정양)」
「여우고개(작곡 김정양)」
「시흥 버스를 타고 가며(작곡 김정양)」

1997. 11. 15. 「소래산 장군바위(작곡 김정양)」
「영경귀(작곡 김정양)」
「지계타령(작곡 김정양)」
「포도나무 가꾸시는 주님(작곡 김정양)」
「주님을 기리는 자(작곡 김정양)」
「도리재(작곡 김정양)」
「시흥고을(작곡 김정양)」
「꿈봉우리(작곡 김정양)」
「저녁놀(작곡 김정양)」
「금수강산 찬가(작곡 김정양)」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살미 앞들로(작곡 김정양)」
「큰말 고개(작곡 김정양)」
「생태산아 생태산아(작곡 김정양)」
「다듬잇 소리(작곡 김정양)」
「야훼를 찬양하라(작곡 김정양)」
「진노가 크심은(작곡 김정양)」
「높은데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박영만 · 김정양 2인음악발표회

1997. 11. 19. 「파란악보(작곡 김정양)」

공주시문예회관 - 한국작곡가회 대전 충남지부작곡발표회

1998. 3. 28. 「낙타를 타며(작곡 한광희)」

인천문예회관 - 봄의 콘서트

1998. 4. 12. 「말씀 하신 그대로(작곡 김정양)」

1998. 4. 12. 「높은데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나는 아니겠지요(작곡 김정양)」
 「구원의 십자가(작곡 김정양)」
 「부활하신 예수님(작곡 김정양)」
 「거기 서 계시니(작곡 김정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작곡 김정양)」
 「면류관 드리세(작곡 김정양)」
 「부활의 승리자 오신다 - 송영곡(작곡 김정양)」
 「생명의 문 여신 주 - 송영곡(작곡 김정양)」
 「고통 이기신 주 - 기도송(작곡 김정양)」

인천입마누엘 성전 - 부활절 칸타타

1998. 4. 18. 「다, 이루었다(작곡 김정양)」
 「떡 타령(작곡 김정양)」
 「지게타령(작곡 김정양)」
 「장미꽃(작곡 김정양)」
 「다듬잇 소리(작곡 김정양)」
 「사망을 이기신 주(작곡 김정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작곡 김정양)」
 「돌주리(작곡 김정양)」
 「군자봉(작곡 김정양)」
 「물 위의 비단길(작곡 김정양)」
 「허수아비(작곡 김정양)」
 「여우고개(작곡 김정양)」
 「부활절 칸타타(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박영만·김정양 2인 음악발표회

1998. 6. 19. 「금수강산 찬가(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제3회 한국작곡가회 경인지회 신작가곡의 밤
1998. 6. 26. 「망 원 정(작곡 고영필)」
평택대학예술관 —고영필 교수 가곡 작곡 발표회
1998. 8. 21. 「떠가는 구름아(작곡 김종덕)」
「우리 주님 이죄인을(작곡 김수정)」
「주님 고통 이기신 주(작곡 김종덕)」
서울경동교회 —찬송가 제3집 한국찬송가신작발표회
1998. 9. 5.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매들은 높이높이(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시낭송에 의한 새노래 발표 출판기념 음악회
1998. 10. 22. 「이젠 알겠어요(작곡 김찬기)」
KBS홀(여의도) —서울 창작 가곡제
1999. 4. 17. 「꽃자리(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제4회 가곡창작회 정기연주회
1999. 5. 27. 「높은데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영락교회베다니홀 —제1회 미성작 성가합창곡 발표회·제2회 크리스찬 코랄 정기연주회
1999. 6. 14. 「달님에게(작곡 최현석)」
연세대학기념관 —제6회 서울 창작 가곡제

1999. 6. 26. 「도토리 동산(작곡 김정양)」

「호수로 나가(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제18회 김정양 작곡발표회

1999. 11. 15. 「주님을 기리는 자(작곡 김정양)」

영락교회베다니홀 - 합창곡 발표회(김정양)

2000. 4. 22.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주님(작곡 김정양)」

「주님을 기리는자(작곡 김정양)」

「깊신(작곡 김정양)」

「주님은 어디에(작곡 김정양)」

「하느님께 영광(작곡 김정양)」

「주님 고통 이기신 주(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제19회 김정양 작곡발표회

2000. 5. 25. 「품앗이(작곡 이승곤)」

전북예술회관 - 전북작곡가회 작곡발표회

2000. 6. 10. 「리강 二百里(작곡 김동진)」

「구절초(작곡 김정양)」

「바위는(작곡 김동진)」

인천문예회관 - 한국 가곡 제 6집정다운 노래발표회

2000. 9. 16. 「도토리 동산(작곡 김정양)」

「흰 나비야(작곡 김정양)」

「도톨암(작곡 김정양)」

「품앗이(작곡 김정양)」

2000. 9. 16. 「지계(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제20회 김정양 새 합창곡 발표회

2000. 12. 1. 「일송정(작곡 송재철)」
서초구민회관 — 한국가곡학회 창작 가곡의 밤

2001. 5. 13. 「사육신 공원(작곡 김정양)」
세종문화회관 — 한국국민악회 제17회 작곡발표회

2001. 5. 26. 「주님은 어디에(작곡 김정양)」
「사육신 공원(작곡 김정양)」
「미산동(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하느님께 영광(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김정양 회갑기념 작곡 발표

2001. 9. 8. 「서울마당에(작곡 김정양)」
「도토리 동산(작곡 김정양)」
「독립문(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사육신공원(작곡 김정양)」
「장하다 백두산아(작곡 김정양)」
「북한산 메아리(작곡 김정양)」
인천문예회관 — 김정양 합창곡7집 새 한국 합창곡집

2001. 10. 3.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이종록)」
금호아트홀 - 'Laboce 정기연주회'

2001. 10. 27. 「큰 사랑 하늘 못에(작곡 김규환)」
「서해낙조(작곡 김동진)」
인천여성회관 - 한국가곡창작회 제7회 신작가곡발표

2001. 11. 11. 「주님께서 부르시네(작곡 김종덕)」
부산연산교회 - 찬송가 봉헌음악예배 한국찬송가 신작발표

2002. 4. 30. 「목련의 연정(작곡 김종덕)」
한국음악연수원 - 김종덕 예술가곡집 제3집 '목련의 연정' 발표회

2002. 5. 14. 「일송정(작곡 이진영)」
금정문화회관 - 한국음악작곡가회 창작가곡의 밤

2002. 11. 12. 「물은 그저 그렇게(작곡 길정배)」
서초구민회관 - 제4회 신작발표 푸른 꿈의 노래

2003. 5. 24.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바위는(작곡 김정양)」
「옛장수(작곡 김정양)」
인천여성회관 - 김정양 선생 추모음악회

2004. 12. 6. 「고구려인(작곡 김성광)」
국립극장 달오름 - 제11회 서울창작가곡제

2004. 12. 10. 「시흥아리랑(작곡 박찬일)」
중국연변
2005. 7. 16. 「시흥아리랑(작곡 홍요섭)」
시흥실내체육관 —시흥챔버오케스트라 향토가발굴창작발표연주회'(합창:한국산기대합창단)
2006. 6. 16. 「문수산전대대(작곡 한광희)」
국립극장 달오름 —제7회 서울합창제
2007. 8. 11. 「시흥아리랑(작곡 홍요섭:재편곡)」
장곡6호 근린공원 —시흥챔버 장곡동주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야외음악회
2007. 8. 25. 「시흥아리랑(재편곡 홍요섭)」
시흥청소년수련관 —시흥챔버 사랑과 평화 제2악장
2007. 12. 28. 「옥구정(작곡 서산나)」
「시흥버스를 타고가며(작곡 서산나)」
어여쁜 뜰안 —글향출판기념회
2008. 8. 21. 「아름다워라, 무궁화동산(작곡 함은정)」
「시흥찬가(작곡 함은정)」
시흥실내체육관 —시흥챔버 정부수립 60주년, 시흥시승격 19주년 경축음악회

| 박영만 시 작곡 등재 서책 |

등재 연도순

1995. 8. 1. 『영남 새 가곡집』 제2집
「파란악보(작곡 김종덕)」
「하우고개(작곡 최태숙)」
「호박덩이(작곡 최태숙)」
「소나무로 서있음은(작곡 허정애)」
1995. 10. 14. 『가을맞이 신작 가곡의 밤 작곡집』(한국 음악지도협회)
「짚신(작곡 김성광)」
1995. 12. 11. 김성광 예술가곡집 『백두산』(동진음악출판사)
「짚신(작곡 김성광)」
1996. 3. 20. 『12인의 새가곡집』 제1집(미완성)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하우고개(작곡 홍권욱)」
1996. 8. 20. 박영만의 시와 노래의 만남 『하우고개』
「하우고개(작곡 김국진)」
「은행정에 오르니(작곡 김정양)」
「생매산아, 생매산아(작곡 김정양)」
「소래산 약수터(작곡 김정양)」
「미산동(작곡 김정양)」
「소래산 장군바위(작곡 김정양)」
「각시골 모내기(작곡 김정양)」
「시흥버스를 타고가며(작곡 김정양)」
「꿈 봉우리(작곡 김정양)」

「파란 악보(작곡 김정양)」
 「북한산 메아리(작곡 김정양)」
 「시흥 마당에(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깊신(작곡 김성광)」
 「견우직녀(작곡 한광희)」
 「소나무로 서 있음은(작곡 허정애)」
 「홀아비꽃대(작곡 김광순)」

1996. 12. 10. 김종덕 예술가곡 제2집 『고향마을』(海光)
 「파란 악보(작곡 김종덕)」

1997. 5. 26. 제5회 물왕예술제 『항토시 창작가곡제』 작품집
 「살미 앞뜰로(작곡 김종상)」
 「파란 신호등의 길(작곡 한정림)」
 「주막거리(작곡 김종상)」
 「무지동(작곡 이삼성)」
 「신안주씨 공덕비(작곡 한정림)」
 「술개고개(작곡 문지예)」
 「하우고개(작곡 최태숙)」
 「천지 물소리(작곡 김규현)」
 「호구탑은(작곡 김규현)」
 「땅에는 소주(작곡 문지예)」

1997. 6. 25. 『詩 그리고 정다운 노래』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1997. 9. 15. 작곡가12인의 『새가곡집』 제2집
 「망원정(작곡 고영필)」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1997. 10. 5. 『97 신작 가곡집』
 「목련의 연정(작곡 채완수)」
1997. 11. 10. 신작 새 노래 『매화꽃 마을』
 「매화꽃 마을(작곡 김정양)」
 「무지동(작곡 김정양)」
 「학미산에 오르니(작곡 김정양)」
 「배터(작곡 김정양)」
 「여우고개(작곡 김정양)」
 「도리재(작곡 김정양)」
 「시흥고을(작곡 김정양)」
 「살미 앞들로(작곡 김정양)」
 「큰말 고개(작곡 김정양)」
 「영경퀴(작곡 김정양)」
 「금수강산찬가(작곡 김정양)」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포도나무 가꾸시는 주님(작곡 김정양)」
 「주님을 기리노라(작곡 김정양)」
 「야훼를 찬양하세(작곡 김정양)」
 「진노가 크심은(작곡 김정양)」
 「높은데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1997. 11. 12. 작곡21 신작가곡집 『내마음의 노래』
 「원두막(작곡 정연근)」
1998. 2. 15. 『부활절 키타타』 <서광>
 「말씀하신 그대로(작곡 김정양)」
 「높은데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나는 아니겠지요(작곡 김정양)」
 「구원의 십자가(작곡 김정양)」

「부활하신 예수님(작곡 김정양)」
 「거기 서 계시니(작곡 김정양)」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작곡 김정양)」
 「면류관 드리세(작곡 김정양)」
 「부활의 승리자 오신다(작곡 김정양)」(송영곡)
 「생명의 문 여신 주(작곡 김정양)」(송영곡)
 「고통 이기신 주(작곡 김정양)」(기도송)

1998. 2. 28. 제2회 『한국 찬송가 신작발표』 <교회음악연구소>
 「봄에는 온갖 꽃 피게 하시고(작곡 김정양)」
 「주님사랑 크시기에(작곡 김정양)」

1998. 8. 10. 『제기랄! 한세상 노래나 불러볼까』 <서해>
 「금수강산 찬가(작곡 김정양)」
 「매화꽃 마을(작곡 김정양)」
 「떡 타령(작곡 김정양)」
 「매들은 높이높이(작곡 김정양)」
 「옛장수(작곡 김정양)」
 「다듬잇 소리(작곡 김정양)」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호박덩이(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개부랄 꽃(작곡 김정양)」

1998. 8. 10. 한국찬송가 제3집 『한국찬송가신작발표』
 「떠가는 구름아(작곡 김중덕)」
 「우리 주님 이 죄인을(작곡 김수정)」
 「주님 고통 이기신 주(작곡 김중덕)」

1998. 8. 25. 『작곡가 12인의 새가곡집』 제3집
「다듬잇소리(작곡 김정양)」
1998. 11. 20. 한국찬송가 제4집 『한국찬송가 신작발표』(한국교회음악연구소)
「주님을 기리노라(작곡 김수정)」
「대지에 심으신(작곡 이선우)」
1999. 5. 『신작 성가 합창곡집』
「높은 테서 호산나(작곡 김정양)」
- 미 상 서울 중등가곡사랑회 작품집 제1집 『푸른 꿈의 노래』
「흰 나비아(작곡 안귀철)」
1999. 6. 30. 『이종록 창작가곡집』 제15집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이종록)」
1999. 9. 18. 『한국찬송가 신작발표』 제5집(한국교회음악연구소)
「예수사랑 크시기에(작곡 김국진)」
「영광 영광 하느님께(작곡 김정양)」
「주 백성 주님께(작곡 김정양)」
「주님께서 부르시네(작곡 김종덕)」
1999. 10. 18. 『신작 성가 합창곡집』 제1집(한국교회음악연구소)
「알렐루야 알렐루야(작곡 김정양)」
1999. 11. 14. 『신작 성가 합창곡집』 제2집(미완성)
「주님을 기리는 자(작곡 김정양)」
2000. 4. 20. 김정양 가곡 5집 『거시기의 노래』(서해)
「깊신(작곡 김정양)」

2000. 5. 25. 한국 가곡 제 6집 『정다운 노래』
「리강 二百里(작곡 김동진)」
「구절초(작곡 김정양)」
「바위는(작곡 김정양)」
2000. 5. 25. 김정양 합창곡 6집 『새 한국 합창곡』〈서해〉
「흰 나비야(작곡 김정양)」
「도토리 동산(작곡 김정양)」
「지게(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도틀암(작곡 김정양)」
「품앗이(작곡 김정양)」
2000. 8. 16. 한국 가곡학회 제 1집 『새 가곡』〈한국가곡학회〉
「일송정(작곡 송재철)」
2000. 8. 25. 『한국 찬송가 신작 발표』 제6집〈교회음악연구소〉
「봄에는 온갖 꽃 피게 하시고(작곡 김정양)」
2001. 4. 신작 『한국예술가곡집』 상권〈한국가곡작사가협회〉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이종록)」
「다듬잇소리(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하우고개(작곡 홍권욱)」
2001. 5. 13. 한국국민악회 『새 노래 합창곡』〈국민악회〉
「사육신 공원(작곡 김정양)」
2001. 7. 23. 김정양 합창곡7집 『새 한국 합창곡집』
「시흥마당에(작곡 김정양)」

- 「도토리동산(작곡 김정양)」
「독립문(작곡 김정양)」
「개부랄꽃(작곡 김정양)」
「사육신 공원(작곡 김정양)」
「장하다 백두산아(작곡 김정양)」
「북한산 메아리(작곡 김정양)」
2001. 8. 2. 『한국 작곡가 4인의 가곡집』
「견우직녀(작곡 한광희)」
2001. 9. 19. 제8회 『서울창작가곡제 작품집』
「큰사랑 하늘 못에(작곡 김찬기)」
2001. 11. 10. 『정다운 노래』 제7집 <동진음악출판사>
「미산동(작곡 김정양)」
「큰사랑 하늘 못에(작곡 김규환)」
「서해낙조(작곡 김동진)」
「사육신 공원(작곡 김정양)」
2001. 11. 16. 『신작 성가 합창곡집』 제6집 <미완성>
「하느님께 영광(작곡 김정양)」
2002. 4. 30. 『김종덕 예술가곡집』 제3집 ‘목련의 연정’
「목련의 연정(작곡 김종덕)」
2003. 5. 24. 김정양 선생 『추모음악회』 작품집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바위는(작곡 김정양)」
「옛장수(작곡 김정양)」

2006. 5. 12. 『인문가출판』
「우리주님 이죄인을(작곡 이종록)」
2007. 5. 7. 『아사히출판』
「주님고통 이기신 주(작곡 이종록)」
2007. 9. 20. 한국시인협회 『국토사랑시집』
「시흥찬가」
2007. 12. 10. 목련문학 작품집 『글향』
「시흥찬가」(작곡 함은정)
「서해낙조」(작곡 김동진)
「소래 염전에 서서」
「소금창고」
「물왕저수지」
「벼슬고지 연꽃」
「안성 부원군 묘소 앞에서」
「피흘(리)고개」
「비석 거리」
「누낭 고개」 등 26작품
2007. 12. 30. 『강창식 서정 가곡집』 ‘섬진강’
「다듬잇소리(작곡 강창식)」

| 음악(C.D) 공동 출판 |

- 김정양 한국가곡집 『山河의 노래』 — 「호박덩이(작곡 김정양)
「금수강산 찬가(작곡 김정양)
「저녁놀(작곡 김정양)
「파란 악보(작곡 김정양)
「연아 날아라(작곡 김정양)
「매들은 높이높이(작곡 김정양)
「손을 잡고(작곡 김정양)
- 제8집 「이종록 창작가곡집」 — 「바위(작곡 이종록)
- 한국가곡학회 제5집 「창작가곡」 — 「바위는(작곡 김정양)
- 제3집 「이종록 창작가곡집」 —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이종록)
- 제13회 「전북작곡가회 작곡발표회」 —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김상희)
- 테너 유흥준의「Korean Lyrical Song」 — 「가을이 저무는 소리(작곡 이종록)
- 제16회 「전북작곡가회 작곡발표회」 — 「폼앗이(작곡 이승곤)
- 건국50주년기념「제5회 서울창작가곡제」 — 「이젠 알겠어요(작곡 김찬기)
- 한국가곡학회 제2집 「새가곡」 — 「일송정(작곡 송재철)
- 한국가곡학회 제3집 「새가곡」 — 「일송정(작곡 송재철)
- 제8회 한국예술가곡 「서울창작가곡제」 — 「큰사랑 하늘 못에(작곡 김찬기)
- 제4집 「푸른 꿈의 노래」 — 「물은 그렇게(작곡 길정배)
- 제6회 「서울창작가곡제」 — 「달님에게(작곡 최현석)
- 제2집 「한국작곡가 4인의 가곡」 — 「전우적녀(작곡 한광희)
- 신작 가곡21 「내 마음의 노래」 — 「원두막(작곡 정연근)
- 제10회 「서울 창작 가곡제」 2003.10. — 「가을의 노래-사계절(작곡 송재철)
- 제11회 「서울창작가곡제」 국립극장 달오름 — 「고구려인(작곡 김성광)
- 제12집 「이종록 가곡집」(제12집) — 「고구려인(작곡 이종록)
- 제10집 「한국가곡학회」(제10집) — 「봄의 노래(작곡 송재철)
- 제10집 「한국가곡학회」 — 「사월의 노래(작곡 송재철)
- 제7집 「한국가곡학회 창작가곡」 — 「11월의 노래(작곡 송재철)
- 제 9집 「한국가곡학회 창작가곡」 — 「여름 낭만(작곡 송재철)
- 「김종덕 예술가곡집」(은사시나무의 가을) — 「목련의 연정(작곡 김종덕)

- 제10집 「이종록 가곡집」 — 「너도 길 잃은 양(작곡 이종록)」
- 제11집 「이종록 가곡집」 — 「간지스 江(작곡 이종록)」
- 제1집 「한국작곡가 4인의 가곡」 — 「다듬잇소리(작곡 김정양)」
- 제7회 「서울창작합창제」 — 「문수산 전망대에서(작곡 한광희)」

박영만 제3 가사집
시흥 아리랑

초판 1쇄 인쇄 | 2008년 9월 15일

초판 1쇄 발행 | 2008년 9월 20일

저 자 박 영 만

발 행 인 金 年 均

편집국장 정 종 명

발 행 처 사)한국문인협회
月刊文學 출판부

등록일자 1998년 9월 17일(제300-2001-83호)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117 예총회관 303호

편집 : 02)744-8046~7

출판 : 02)744-8075

팩스 : 02)743-5174

전자우편 : klwa95@hanmail.net

ISBN 978-89-6138-044-7 03810

값 10,000원

* 저자와 협의 아래 인지를 생략합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시흥 챔버 오케스트라 주최
 정부수립 60주년
 시흥시 승격 19주년
 경축음악회
 〈시흥 찬가〉
 〈아름다워라, 무궁화동산〉
 연주 장면



9 788961 380447

ISBN 978-89-6138-044-7

정가 10,000원